

소사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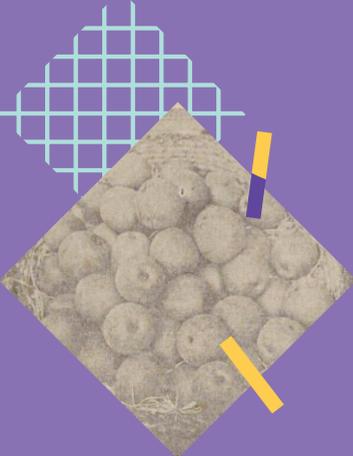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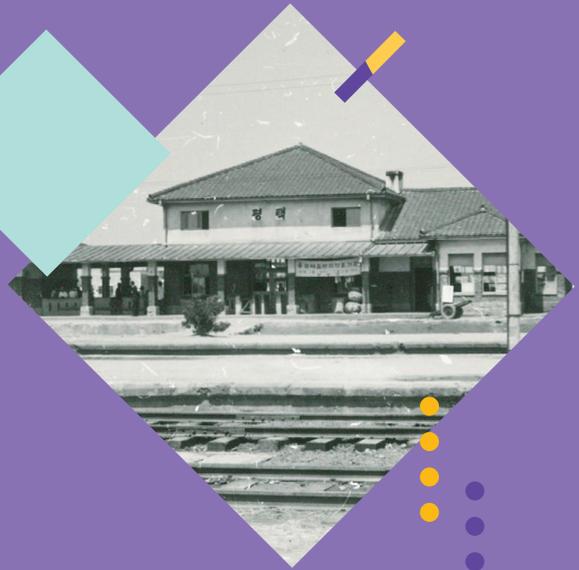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9

평택역 터

1905~1953년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으로 설치됐다. 근대도시 평택의 출발점이며 근대교통의 중심이었다. 6.25전쟁 유엔군 폭격으로 역사(驛舍)가 파괴되면서 1953년 일철도 동쪽으로 옮겼다.

평동행정복지센터
12개 단체



소사벌

2023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9



2023년 4월 / 통권 제39호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신태식
위 원 박성복, 강기중, 김희경, 이형범, 홍인석
편집 오민영, 최치선, 황수근, 최희련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3년 4월 21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번호 031-655-2002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출판 나무기획 031-654-0104

© 2023 평택문화원 ISSN 1739-9556

- ※ 이 책의 게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평택문화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획특집
**근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

- 04** '철도촌' 평택의 탄생과 현대 도시 평택의 기원
- 08** 근대도시 평택과 조선인 유지층
- 12** 근대 평택의 일본인 사회와 삶

평 平 채우다

- 16** 빛바랜 사진이야기
- 20**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24** 평택을 품은 이야기
- 28** 여기는 평택이다
- 32** 수어관광지도
- 34** 캠프 험프리스
- 38** 오성뜰막걸리
- 40** 파란기둥 독립서점, 생활방식
- 44** 평택예술문화협동조합
- 46** 우리지역 문화예술인 옷칠화 작가
- 50** 천년을 이어온 소리, 범종
- 54** 평택문화유산정책 방향

택 澤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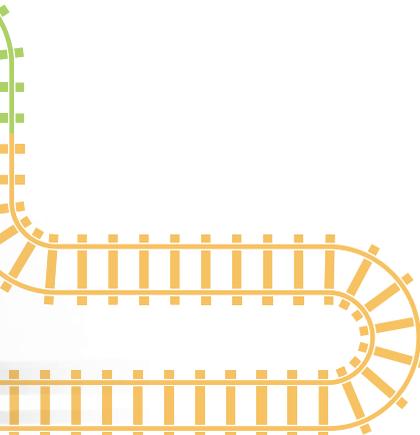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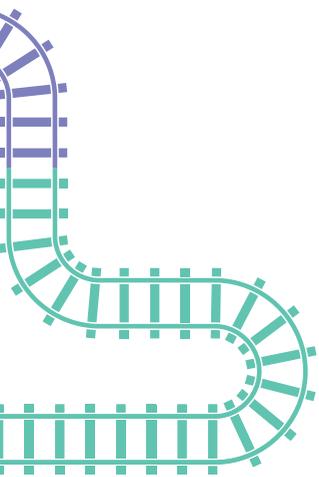
- 58** 향토사 발간《평택총쇄》
- 62**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 66** 2023 평택 달맞이 축제
- 70**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연구
- 74** 2022 평택학 시민강좌 중계
- 76** 소생 : 다시 태어난 폐탄광
- 80** 평택빵집로드
- 84** 제9회 노을동요제
- 86** 제3회 평택시민동요부르기대회
- 88** 제10회 대한민국 삼봉서화대전
- 90** 소사별화보
- 96** 평택문화원 소개

'철도촌' 평택의 탄생과 현대 도시 평택의 기원

허영란 울산대학교 교수

평택역-평택동(1970년대) ©사진제공/이미지뱅크코리아





평택의 근대는 기차와 함께 출발했다. 20세기 초 일본은 경부철도를 부설하고 마을도 길도 없는 진위군의 험한 들판에 철도역을 설치했다. 철마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들판을 가로지르기 시작하면서 평택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원평동 일원에 설치된 평택역은 일본인 세력이 유입되고 근대적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철도의 부설은 지방에 대한 경찰의 치안력을 강화시켜 일본인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면사무소, 우편소, 창고, 금융조합, 각종 검사소와 함께 주재소까지 들어섰다. 기존의 마을들과는 별개로 새로운 시가가 역전에 조성되었으며 일본인 관공리와 상인들이 그 근간을 장악하고 지역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철도역이 지역 거점으로 급부상하자 지역 경제를 비롯해 각 지방의 전통적 질서는 모든 측면에서 동요했다. 철도를 중심으로 물자 운송 체계가 새로 편성되었고 기존에 한국인들이 이용하던 교통로와 운송 수단은 보조적인 위치로 밀려났다.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는 수운이 평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자 운송로였다. 평택의 군문포와 아산의 둔포로 연결되는 바닷길을 통해서 쌀, 보리, 콩 등 평택 평야의 주요 생산물이 운송되고 외부의 물자가 들어왔다. 당시에는 상업 활동을 증개하는 혈맥이 수운이었기 때문에 큰 시장이 열리던 안성과 더불어 아산의 둔포가 핵심적인 상업 거점이었다. 당시에 평택은 서쪽의 둔포 상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900년경에는 둔포에 거점을 둔 보부상 200여 명이 평택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철도 부설 당시에도 그렇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된 뒤에도 평택군은 충청도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가 1914년 조선총독부가 지방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평성면을 중심으로 하는 구 평택군과 수원군의 일부가 경기도 진위군에 병합되었다. 동시에 철도역 일원에 평택리를 신설해 이곳을 군청 소재지로 정하고 군청 청사와 면사무소를 새로 지었다. 이렇게 해서 ‘철도촌’ 평택은 진위군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그 뒤로 평택역과 평택리가 계속 발달하

면서 1938년에 진위군의 명칭이 평택군으로 바뀌었고 평택리는 평택읍으로 승격되었다.

충청도에 속해 있던 옛 평택의 군청소재지는 팽성면 객사리였다. 그런데 철도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자 사람들은 군청이 있던 팽성면을 '구평택', 새로 발달한 평택역 일원을 '신평택'이라고 불렀다. 철도촌으로서 역사 무대에 처음 등장한 이 '신평택'은 일제시기에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 남부 일원의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섰고, 그것이 오늘날 50만 인구를 자랑하는 평택시의 역사적 기원이다.

당시 신평택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평택 시가지의 조성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평택은 전통적으로 서해안의 수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 발달을 위해서는 그런 특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했다. 평택역은 경부철도 연선의 철도역 가운데 서해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서해 포구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측에서는 평택역 서쪽 원평동을 시가지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철도 교통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확장을 위해 평택역 동쪽을 시가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수운과의 연결을 감안해서 신시가지는 평택역의 서쪽인 원평동 일원에 조성되었다. 이런 갈등은 철도가 지역 발달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면서도 도시 공간을 물리적으로 두 쪽으로 갈라버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철도는 평택을 탄생시키고 평택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주었지만, 철도 때문에 양단으로 갈라진 도시 공간 문제는 이후 평택의 성장 과정에서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되었다.

철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운송 체계가 확립되면서 평택은 경기남부 지역의 생산물을 이출하고 주변 시장으로 이입 물자를 공급하는 중개상업지로 발달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어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평택 역시 근대 도시로서의 기틀을 닦았다. 하지만 해방과 뒤이어 일어난 한국전쟁의 포화는 철도촌 평택의 삶과 공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평택의 미래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일본인들의 주도로 조성된 원평동 일대의 평택 시가지는 전쟁 당시의 폭격으로 전부 파괴되었다. 잿더미 위에서 재건된 도시는 이전과는 그 지향이 바뀌었다. 한국전쟁 이후 평택 시가지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방향으로 새로 개발되었다. 냉전 체제 아래 한반도에 형성된 엄혹한 분단과 대립으로 인해 서해와 연결되는 수운의 중요성은 무력화되었다.

일제시기에 조성되었던 원평동 일대의 '신평택'은 파괴되어 또 다른 '구평택'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평택역 동쪽 일원에 다시 한번 새로운 평택 즉 '신평택'이 조성되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국인과 더불어 평택의 또 다른 주민이 된 미군이 그 주역이라는 점이였다. 서쪽으로 열려있던 평택역의 정문은 동쪽으로 변경되었고 역 앞쪽으로 방사형 도로가 건설되었다. 조선 후기 이래 주목받았던 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중간 교역지로서 평택의 중요성과 기능도 퇴색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그런 추세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충청도 시절의 팽성읍과 일제강점기 원평동 일대의 '구평택' 두 곳은 기억 속에만 아스라이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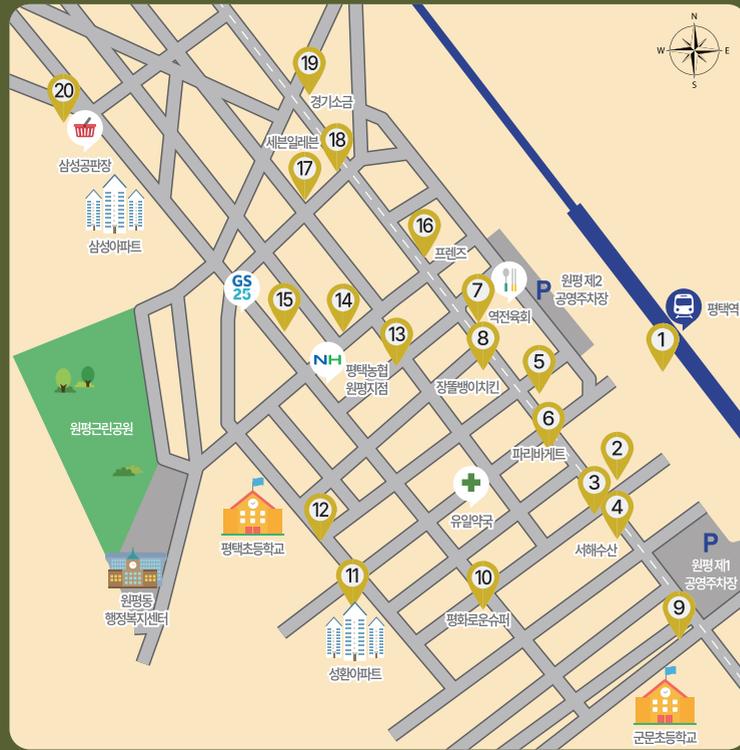
민자역사로 개발된 평택역

평택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철도였다. 철로를 따라 사람과 물자와 돈이 집중되었고, 그것에 힘입어 평택은 중개 상업지로 성장했다. 20세기 말 냉전이 해체되고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평택은 서해안 수운과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는 중개지로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평택이라는 도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철도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설치된 평택지제역이 현대 도시 평택에 또다른

변화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철도라는 외부 조건이 도시 변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지만, 평택을 어떤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는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구평택'과 '신평택'에 관한 기억과 기록은 시대의 변화 속에 고착되거나 결코 안주하지 않았던 평택의 역동적 역사를 말해준다. 21세기의 '철도촌' 평택이 지금까지의 도시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보여줄 날을 기대해 본다. **소사랴**

원평동 골목길을 걷다



- 1 평택역 터(1905~1953)
- 2 국도 1호선 터(1905~1953)
- 3 분장동
- 4 평택우편소 터(1905~1953)
- 5 평택금융조합 터(1914~1953)
- 6 한성공동창고 평택지점 터(1907~1953)
- 7 평택곡물검사소 터(1932~1945)
- 8 평택곡물회관 터(1935~1950)
- 9 평택시가지 케방(1922~ 현재)
- 10 평화병원 터(1939~1968)
- 11 평택상업조합 터(1917~1960)
- 12 평택우시장 터(1906~1953)
- 13 평택장 터(1906~1953)
- 14 평택군청 터(1914~1954)
- 15 평택경찰서 터(1914~1953)
- 16 평택읍사무소 터
- 17 평택세무서 터
- 18 평택소방서 터
- 19 평택권기(주) 터
- 20 진청화원 터

평택인문연구소에서 발행한 '원평동 골목길을 걷다' 리플렛 지도

철도가 만든 근대도시 평택(平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전면 개통되면서 진위군 병남면 통복리와 평택군 읍내면 군문리 사이에는 평택역이 설치되었다. 평택역 일대는 철도역 설치 이전부터 식민지 수탈에 유리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철도개통 직후에는 평택역 앞에 시가지와 시장이 발달했고 서울의 일본인과 주변 지역의 조선인들이 이주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상공업 시설도 빠르게 들어서면서 '평택리'라는 새로운 마을도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평택리'는 전통의 농촌과 달리 교통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공업도시였다. 국도 1호선, 국도 45호선, 국도 38호선 등 근대도로도 평택역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시가지는 평택역 앞과 국도 1호선 변과 평택역에서 서쪽으로 곧게



평택경찰서 터(1914~1953)



평택읍사무소 터





평택세무서 터

2 평택시
평택세무서 터
 ○ 기년: 1934~1953년
 1934년 5월 설치되었다. 내국세 부과, 집면, 징수를 담당했다. 6.25전쟁 때 유엔군 주둔에서 평택을 잃어 양양 임시 행정청, 가오농회(양구농어촌청)사무실로 사용했다. 1953년 광복사망의 16월간고 어선했다.
 김경중 행정복지센터
 평택공 12개 단(제12의)



평택장 터(1906~1953)

2 평택시
평택장 터
 ○ 기년: 1906~1953년
 1906년 양구면 양리리 앞의 평택리였다. 일제강점기 말까지 양구면 양리리(현 양구)에 있던 양구면의 시장이 양구면 양리리(현 양구)로 옮겨왔다. 양구면 양리리(현 양구)가 양구면 양리리(현 양구)로 옮겨왔다. 양구면 양리리(현 양구)가 양구면 양리리(현 양구)로 옮겨왔다.
 김경중 행정복지센터
 평택공 12개 단(제12의)

뺨은 국도 45호선 좌우에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중심 가로로 '혼마치(本町通)'라고 하였다. 평택역 앞과 혼마치에는 주요 관공서와 금융기관, 의료시설, 상회, 요정, 숙박업소,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평택역 앞이 신중심으로 부상하면서 1914년에는 진위면 봉남리의 진위군청이 이전했다. 1910~30년대 전후에는 진위경찰서(평택경찰서)와 평택면사무소, 우편소, 세무서, 연초영업소, 곡물검사소, 조선농회, 상업은행 평택지점, 평택금융조합 같은 공공기관과 평택상업조합, 평택운수(주)와 같은 근대회사들이 자리 잡았다. 혼마치와 진위군청 사이에는 평택장이 발달했다. 평택장은 유리한 교통망과 곡물과 어염의 집산지라는 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1930년대 후반에는 경기남부 최대의 상업도시였던 안성장에 근접할 만큼 확장되었다.

평택역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재편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도 증가했다. 1913년 평택리 인구는 일본인 65호, 조선인 500여 호였다. 《경기도세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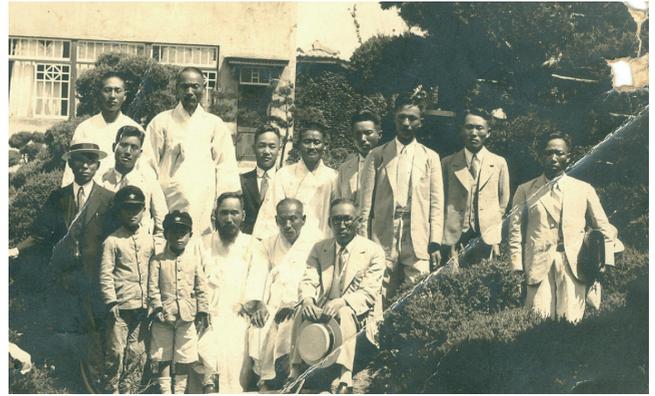
(1926)의 병남면 인구는 332호 1,552명이었다. 이 가운데 400~500명이 일본인으로 전체인구의 1/3에 해당되었다. 조선인 인구도 빠르게 증가했다. 평택리에 정착한 일본인과 조선인은 대부분 공무원(公務職)이거나 상공업 종사자였다. 평택평야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했거나 직산 등에서 광산업에 종사했던 일본인들도 있었다. 1929년 《진위군세일반》의 진위군 직업별 인구에서 공무(公務)와 자유업자가 1,839명, 공업 469명, 상업 및 교통업 2,436명이었는데 이중 상당수가 평택역전에 거주했다고 판단된다.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는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1931년 평택면 평택리로 개칭되었다. 이와 함께 1933년에는 시구개정(市區改正)으로 도시 정비를 마쳤다. 시구개정(市區改正)은 평택역 앞의 커다란 연못을 메우고 도로를 정비하여 시가지를 바둑판 형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연못이 메워진 자리에는 공공시설과 상공업 시설이 자리 잡았다. 1938년에는 평택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평택'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근대도시로 발돋움했다.

평택역전 조선인 유지층과 동향

평택역전의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공무원(公務職)이 아니면 상공업에 종사했다. 일본인들은 국도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혼마치 일대에 주거지를 형성하고 상공업활동을 했다면, 조선인들은 평택역전과 혼마치의 서쪽 끝부분, 평택장 일대에서 상공업활동을 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전통의 양반계층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추고 기초적인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나머지는 상공업활동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았다. 1930, 40년대에는 수원이나 안성지역 자본가들도 모여들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공무원(公務職) 종사자와 상공인들도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진위군청이나 병남면(평택면)사무소, 진위(평택)경찰서와 같은 식민통치기관에 협조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의 공공사업과 빈민구제에 참여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1930년대부터는 형식적이거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정치에도 진출하여 면협의회원, 도평의원에 당선되거나 면장(面長)과 군수(郡守)와 같은 직책을 맡았으며, 금융조합장이나 금융조합 이사, 농회 이사, 곡물조합장, 곡자재조합장과 같은 식민통치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으로 진출했다. 일본인 상공 유지층과 손잡고 근대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전시체제기에는 친일적 사회·경제단체에 협력하고 국방헌금을 납부했으며 창씨개명,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을 식민지 유지층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평택역전의 유지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공무원(公務職)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



은양온천 방문한 이성열과 안중철(1934년 4월 29일)



사회장을 치루어진 안중철 장례행렬(1940년 7월 26일 사망)

던 최익하, 안중순, 박원용, 유창근을 꼽을 수 있고, 상공업 자본가로 성장하여 평택금융조합, 평택곡물조합, 면협의회원, 도의원을 지낸 인물로는 안중철과 이민환, 이성열, 성주한, 정인창 등이 있다. 이밖에도 윤종민, 유진, 신순호, 황경수, 윤응구, 이삼규, 안성 출신의 자본가 박필병과 목옥상, 지주 자본으로 평택역전에 진출하여 상공업 자본가로 성장한 민광식, 이강세도 영향력이 큰 유지였다. 특히 안중철, 이성열, 이민환, 성주한 등은 평택장의 곡물상으로 자수성가하여 평택역전의 대표적인 상공업자로 성장했고, 이를 토대로 평택금융조합장, 곡물조합장, 곡자재조합장과 같은 주요 상공업단체의 대표가 되었으며, 1930, 40년대에는 면협의회원, 도의원에 당선되어 지역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사벌**

근대 평택의 일본인 사회와 삶

성주현 평택박물관연구소장



일제강점기 평택역에서 바라본 본정통

일본인의 이주와 일본인 사회의 형성

한말, 일제강점기 국내 즉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을 일반적으로 '재조일본인'이라고 한다. 용어 그대로 설명하면 '조선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을 뜻한다. 이를 평택 지역에 국한한다면 '재평일본인' 또는 '평택 거주 일본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한말과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은 식민잔재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재조일본인 사회가 형성된 지역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물론 이 시기 한 민족은 해방을 위한 끊임없이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였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

평택에 일본인이 정착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평택지역도 한말부터 일본인이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해방을 맞을 때까지 평택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쳤다. 평택 지역은 부산, 서울, 인천 등 주요 도시나 개항장보다는 늦은 경부선이 개통한 1905년을 전후하여 일본인이 하나 둘씩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10년대 평택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평택지역에 일본인이 이주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드넓은 평택평야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이었다. 지금은 이천 쌀이 유명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택 쌀이 더 유명하였다. 당시만 해도 평택은 미곡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평택지역 일본인 통계는 많지 않지만, 1921년 3월 7일자 《매일신보》에 의하면 평택지역 일본인은 호수 203호, 남자 400명, 여자 327명으로 모두 729명이 거주하였으며, 1927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평택지역은 일본인 가구 116호, 642명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1929년 《진위군세일반》에는 176호로 남자 344명, 여자 322명으



모리야마(森山) 진위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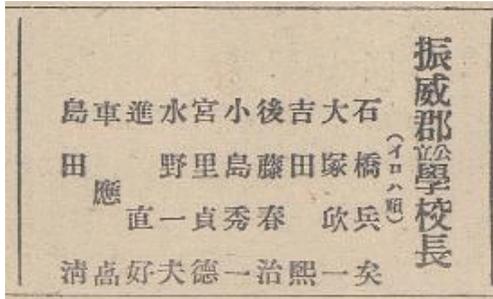
미스하라(瑞原) 평택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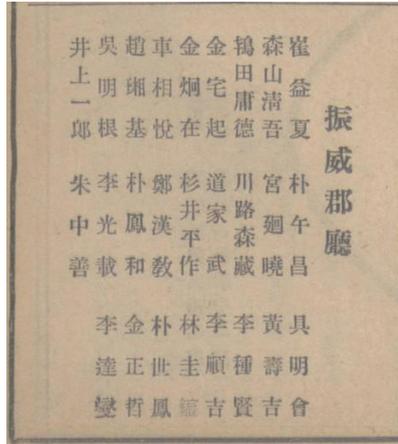
아노 평택경찰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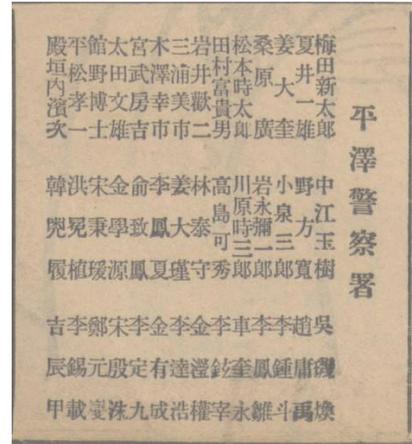
우메다 평택경찰서장



공립학교장 신문광고(조선신문 1932년 1월 30일)



조선신문에 게재된 진위군청 광고



조선신문에 게재된 평택경찰서 광고

로 총 666명의 일본인이 평택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1929년 평택의 인구는 남자 34,383명, 여자 32,711명으로 총 67,094명이었다. 평택지역에 정착한 일본인은 평택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인구의 약 1% 차지

1920년대 후반에는 7백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생활권도 평택역 주변에서 서탄면, 오성면, 서정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평택 중심가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들도 점차 늘어갔으며, 외곽에는 농장과 과수원 등을 경영하였다.

평택은 교통의 편리로 인해 군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를

비롯하여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과 기업의 지점들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관공서와 지점 등에 근무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일본인촌은 점차 평택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갔다. 평택지역의 농업과 상권, 경제권을 서서히 장악하였고, 지역유지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평택역 일대는 가장 변화한 곳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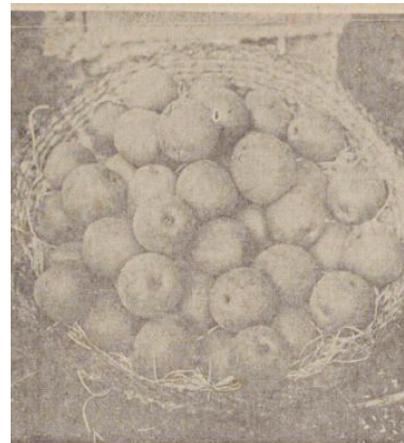
평택역 일대는 기존의 평택인과 일본인 사이에 경제권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렸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관변적 성격이 강한 조합 등의 단체들을 조직하여 경제권을 장악해나갔다. 물론 이들 단체에는 평택인들도 참여하였으며, 나름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평택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 확립하기 위해 일본인 중심의 각종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른바 학교조합, 소방조, 재향군인회, 애국부인회 등이다. 학교조합은 일본인 본위의 교육을 위한 조직이었다. 1906년 거류민단법의 공포로 당시 한국 내에 일본인들은 자치조직인 거류민단을 설치하는 한편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학교조합령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택에서도 학교조합이 조직되었다. 학교조합은 거류민단이 해체된 이후 일본인 사회의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가 되었으며, 평택지역 일본인 유지들이 운영의 중심이 되었다. 소방조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였지만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조선인과 일본인, 경제권 장악 위해 갈등

평택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 사회는 평택 지역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평택지역은 진위군의 중심지인 북면 봉남리가 행정과 경제 등 사회적으로 중심이었지만 경부선 부설과 평택역이 개설되면서 평택역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지금의 원평동, 비전동, 통북동은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잠식하였으며, 근대 도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중, 평성, 서정리, 서탄면 일대에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입하여 크고 작은 농장을 경영하였다. 그중에서도 평택이 가마니와 배로 유명해진 것은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나름 치열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



평택배 이치하라(市原)

기 때문에 이들은 선전가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다. 선전가는 조선에서 쌀 생산지는 평택평야, 역에는 산과 같이 쌓여 있는 가마니 등으로 평택의 평야와 쌀, 가마니 생산을 자랑하고 있으나, 청일전쟁의 승리한 평택·성환전투를 찬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인 단체는 일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식민지배 체제와 맞물려 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시체제가 형성되는 1931년 이후에는 전쟁 동원에 앞장섰으며, 철저한 내선일체 즉 황국 신민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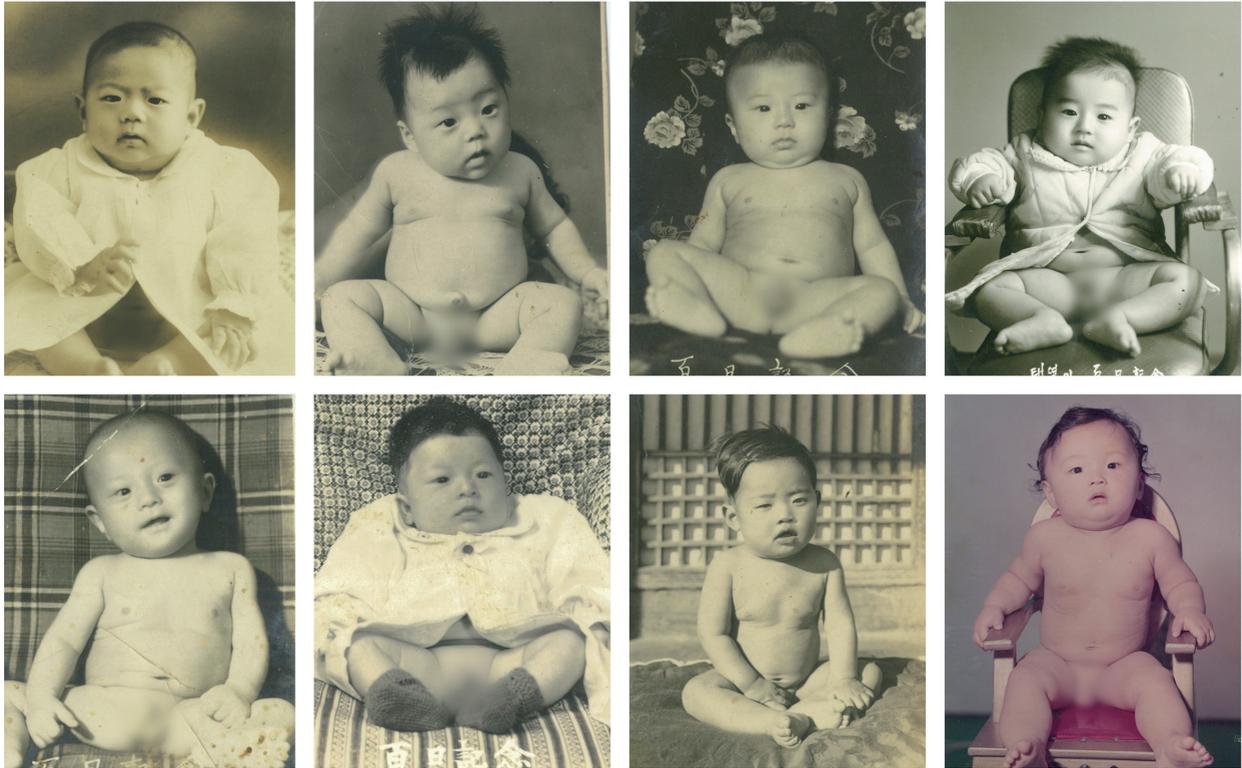
빛바랜 사진이야기 / 생애사 연재 첫번째 - 출생



무통분만 '라산파' 1960년 / 서정리역(평택시 서정동)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지금처럼 병원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때는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동네의 이름난 아주머니나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가 임산부 집을 방문해 출산을 돕는 게 대부분이었다. 아이 낳는 것을 돕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 지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산파' 또는 '조산원', '조산사'라고 불렀다. '산파'는 일정한 장소에 영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사람과 영업 공간 없이 자신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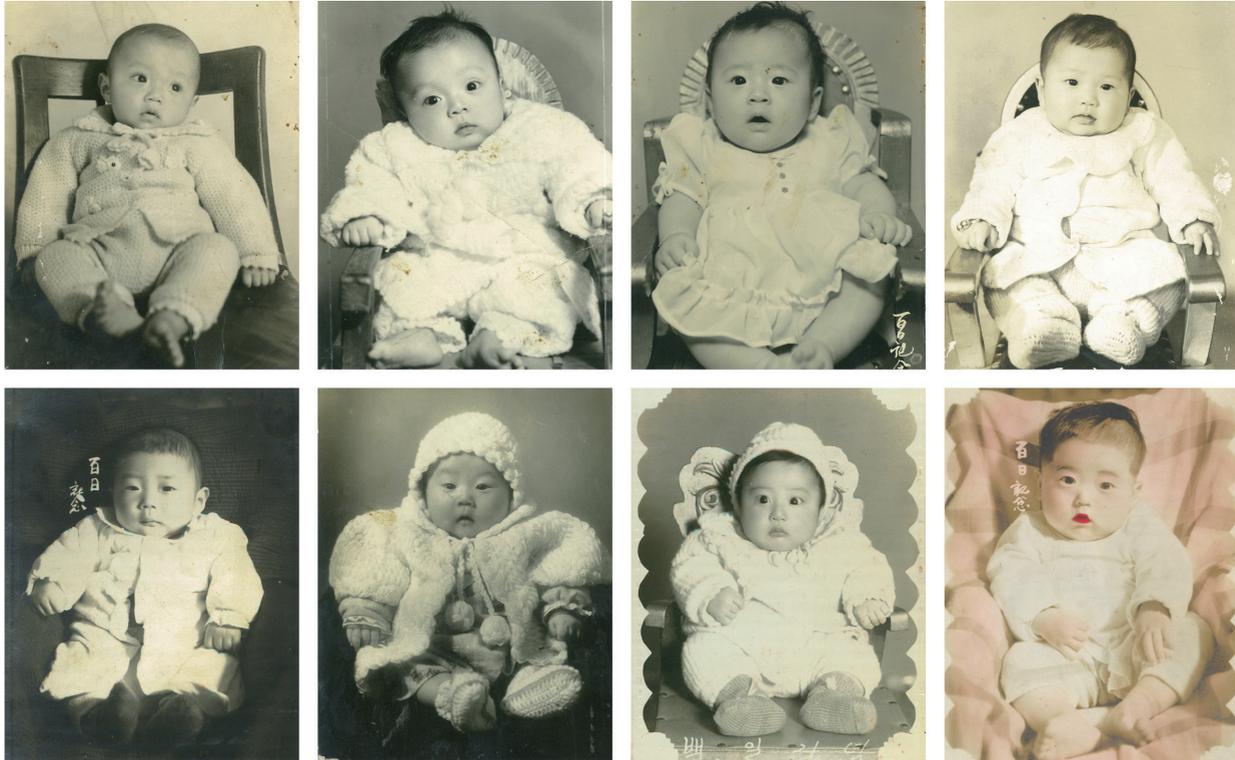
을 거점으로 삼아 방문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사진은 1960년 서정리역 앞 풍경으로 스투드 건물 지붕에 나무로 내달은 '라산파' 간판이 보인다. '라산파'는 송탄지역 곳곳에 간판을 내달아 홍보했는데 간판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페인트로 '무통분만' '라산파' '국제극장 입구'라는 글귀를 썼으며, 개중에는 아래쪽에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한 것도 있었다.



남자 아이 백일 사진 1960~1970년대 / 평택시 전역

현재와 같은 ‘맞벌이’ ‘저출산’ 시대에는 양육을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자녀를 한 명 낳는 것도 힘겨워 하는 상황이다. 1960년대에 세상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50대를 가리키는 ‘586세대’ 이전만 해도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은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며 사는 것이 며느리의 숙명처럼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다. 때문에 드러내놓고 아들을

편애했으며,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특히 경제력인 뒷받침을 요하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이 매우 심했다. 남녀차별은 돌 사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남자 아이들은 옷을 다 벗기거나 또는 상의는 입고 하의만 벗겨 남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놓고 찍는 것이 다반사였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소”라는 식으로 드러내놓고 아들 자랑을 하였다.



여자 아이 백일 사진 1960~1970년대 / 평택시 전역

아들에 비해 딸과 관련된 속담이 유독 많다. 특히 ‘딸 셋이면 문을 열어 놓고 잔다’는 속담은 딸을 많이 둔 사람이 딸들의 혼인을 모두 치르고 나면 가산을 탕진해 몹시 가난해진다는 말이다. 그만큼 딸은 키울 때도 돈이 들어가지만 다 키워 시집보내는 일도 쉽지 않다는 옛 속담인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아들 둘이면 빵집,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이백집’이라는 말을 하거나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간다더라’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정도로 아들을 낳았을 때 보다 딸을 낳았을 때 주

위의 축하를 더 받는 세상이 되었다. 1980~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보다 주위의 시선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백일이나 돌잔치 때만큼은 여자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백일 옷과 돌 옷을 입혔다. 그 시절 남자아이들이 맨몸이나 그리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백일 사진을 찍었다면 여자아이들은 귀여움을 더욱 뽐내게 해주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돌잔치 사진 1960~1970년대 / 평택시 전역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첫 돌을 넘기는 것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의미로 가족과 친지, 동료들이 모여 돌잔치를 하고 아이가 성장해서 무슨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재미삼아 예측해보는 ‘돌잡이’도 하며 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특히 첫돌에는 남녀 모두 한복을 차려입고 돌잔치를 치른다. 지금은 사계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바나나, 파인애플 등 구하기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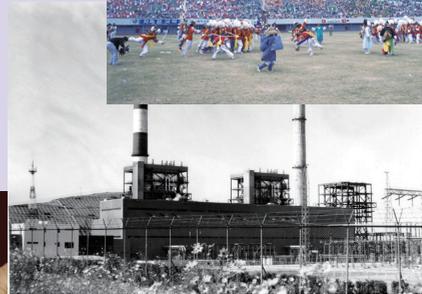
수입과일과 약과, 옥춘, 팔보를 쌓아 돌상에 차렸다. ‘돌잡이’ 용품은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명주실’, 화려한 삶을 의미하는 ‘오방색지’, 학자를 나타내는 ‘붓·연필’, 재물을 상징하는 ‘돈’, 의료인을 의미하는 ‘청진기’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예인을 의미하는 ‘마이크’, IT관련 직업을 상징하는 ‘마우스’, 운동선수를 나타내는 ‘금메달’ 등 ‘돌잡이’ 용품의 종류도 사회 변화상과 직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소사별**

글·사진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Memory in Pyeongtaek 대표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국가기록원 속 평택 2 -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평택 관련 기록은 수만 건이며, 이 기록 중 《소사별》 제38호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국가기록원 속 평택 1>에서는 문서와 도면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번 호에는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중 평택 관련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평택역(1964)



평택역(1964)



평택역(1972)

평택역

1905년 개통해 영업을 개시하게 된 평택역은 일제강점기 병남면 평택리로 철도역 설치 당시 마을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답지였다. 경부선 개통 이후에는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관공서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다.

1919년 3월 11일 평택역 앞 사거리에서는 수천 명이 만세를 부르는 3·1만세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1950년에는 6·25전쟁 중 미군의 오인폭격으로 인해 평택역이 폐허로 변하기도 했다. 현재의 민자역사 이전 마지막 공공역사는 1987년에 신축 준공했으며 2009년에는 민자역사로 지어져 2층은 평택역사, 나머지는 AK플라자가 영업 중이다. 국가기록원에는 평택역의 1964년과 1972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경찰서(1972)



평택군청(1972)

1972년 평택의 관공서 외

평택시는 경제·교통·환경·복지·도시개발·치안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공공 수요 역시 증가해 왔으며 끊임없이 공공 조직이 확대·변화해 왔다. 1981년 7월 1일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 분리됐고, 1986년 1월 1일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돼 평택군이 3개 시·군으로 각각 행정을 펴왔다. 이후 1995년 5월 10일 3개 시·군이 통합돼 현재의 평택시가 됐다. 국가기록원에서는 1972년 평택군의 각종 관공서 자료가 있다. 평택군청을 비롯해 평택경찰서, 평택세무서, 평택우체국, 평택변전소 등과 함께 관공서는 아니지만 중요한 문화시설인 평택극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변전소(1972)



평택세무서(1972)



평택극장(1972)



평택우체국(1972)



평택다목적개발지구기공식-성동국민학교(1971)



평택군간척사업(1973)



평택남양간척지와양수장(1980)

간척과 경지정리

평택은 서해와 접해있고 여러 하천이 흐르는 저습한 지역이 많아 일찍이 간척이 시작됐다. 조선 시대에는 왕실과 훈구대신이 간척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들이 간척을 주도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전쟁피난민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간척하였고 농민들의 소규모 간척도 이루어졌다.

평택의 간척은 평택지구다목적농업개발사업으로 1974년 아산만방조제와 남양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경지정리가 일단락됐다. 해산물이 풍부했던 안성천 하류와 갯벌과 바다를 잃게 됐지만, 농업용수 부족과 만성적인 수해, 염해에 시달리던 평택평야가 옥토로 바뀌게 됐다.

국가기록원에는 1971년 성동국민학교에서 열린 평택지구다목적개발사업 기공식, 1973년 아산만방조제 건설과 간척 농지, 1980년 경지정리가 완료된 평택평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소사벌**



평택경지정리전경(1980)



평택남양방조제(1980)



평택아산방조제(1981)

평택을 품은 이야기

포승 앞바다의 수호신, 영웅바위

글 김채민 문화사업부 주임 / 그림 김주희 작가

포승읍 만호리 앞바다에 우뚝 선 영웅바위

평택항 서부두 끝자락. 오랜 시간 동안 평택을 지킨 바위 하나가 멀찍이 보인다. 포승읍 만호리 앞 바다서쪽으로 약 3km 지점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이 바위는 '영웅암'이라 불렸다. 밀물 시에는 바위의 윗부분이 살짝 보이고 썰물이 되어야만 높이 15m, 밑 둘레 60m의 본연의 자태를 드러낸다는 영웅바위.



영웅바위는 진위·안성·삽교천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예로부터 외수(外水)가 만나 물고기들의 최적의 산란지였던 이곳에서 어부들은 알이 딱찬 강다리 송어, 꽃게, 넙치를 잡았다. 물고기가 지천이라 이곳 사람들은 과거 풍족한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영웅바위는 어부들에게 뱃길을 안내하는 북극성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부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가 되어주기도 했다.

평택을 수호하고 평택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영웅바위. 이 바위에 전해오는 신비한 전설을 들어보자.



평택을 수호한 영웅바위의 전설

1592년(선조 25),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었던 도요토미히데요시가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된 것이지요. 대응책이 미비한 조선은 속수무책 없이 당하기만 했고 왜적의 노략질에 백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군들이 평택항 근처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야밤에 은밀히 이곳에 침투하고자 했던 왜군은 몰래 함선을 이끌고 나타났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 달빛만이 은은히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적막을 깨고 왜군이 공격을 개시하려고 하는 순간, 바다 저편을 바라보니 거대한 장군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장군 주변에 수많은 군졸들도 왜군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기습 공격이라 생각했던 왜군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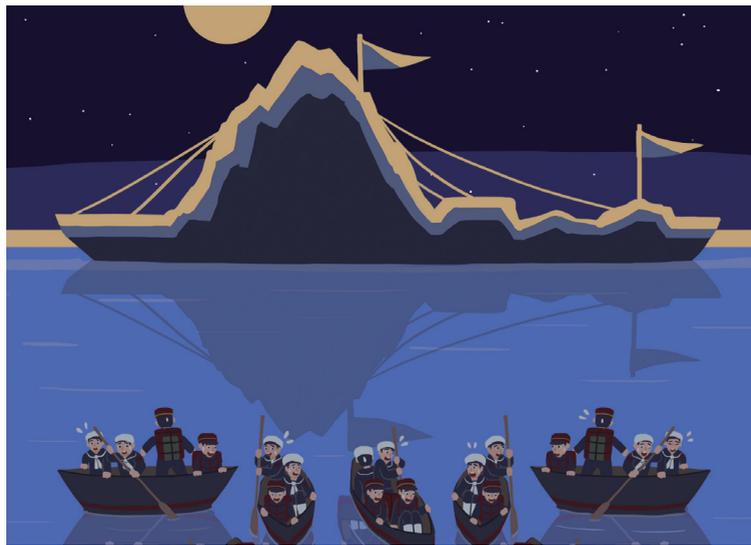
“조선의 숨어 있던 군대를 발견했다. 빨리 도망가라!”

“돌진하라. 적이 살아 돌아가지 않도록 모두 죽여야 할 것이야.”

헛것을 본 것도 모자라 환청까지 들은 왜적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재빨리 도망갔답니다.

이 소식은 멀리 조정에게까지 전해졌지요. 왜군을 물리친 바위의 공을 높이 평가한 임금님은 바위 이름을 ‘영웅암(英雄巖)’라 칭하도록 하고, 정3품의 ‘옥관자’라는 관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영웅 바위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청일전쟁 때의 일입니다. 때는 적막이 흐르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왜군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곳에 몰래 당도했지요.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태세를 갖추려는 순간, 바다 위에 커다란 그림자가 비춰지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왜군이 쳐다보니 거대한 군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왜군은 다급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군함이 나타났다. 퇴각하라!”

위협을 느낀 왜군은 공격조차 하지 못하고, 서둘러 뱃길을 돌려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바위를 군함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다시금 바위가 왜적의 침략을 막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바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바위’라고 회자되었고, 오늘날에는 평택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료로 남아 있는 영웅바위의 기록

令公巖乃在大津之中央

영공암은 바로 대진 한복판에 있는 바위

海濤日夜聲澎湃

파도가 밤낮으로 소리내며 부서지나

屹然不移亦不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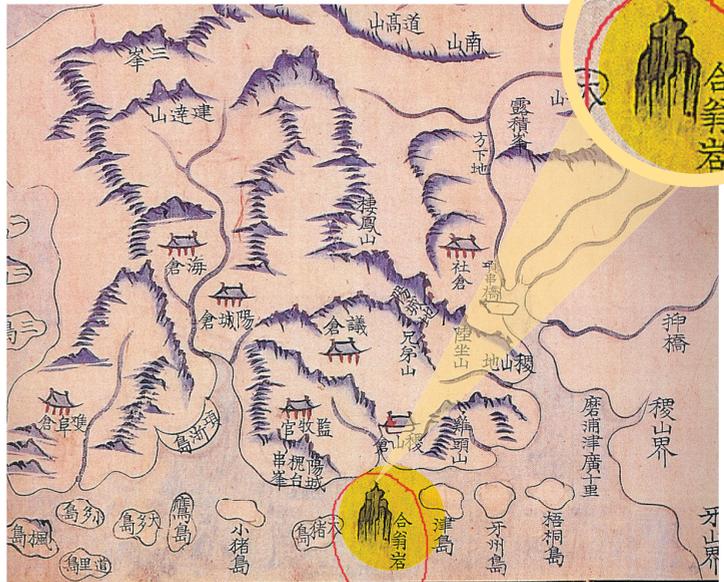
빎짝 않고 끄떡없이 서 있는 모습

嗟乎峙質堅且強

아 산의 바탕 굳세고 강함이어

(…)

조선중기 문인 이식의 《택당집》 제2권 중



경기지도(18세기 중엽)

“...재신 격인 영웅암(令翁巖)은 외수가 서로 만나는 곳을 진압하고 있으니, 이로써 관찰하면 진룡(眞龍)이 크게 결집되어 만들어진 곳이니, 바로 국가에서 쓰기에 합당합니다.”

《홍재전서》 제57권 잡저4



대동여지도(1861) 속 영웅암

“대진은 수원부 서남쪽으로 1백리이며, ... 중류(中流)에 영웅암(令翁巖)이 우뚝 서 있는데 높이는 1백 척 가량 된다. 만조 때에 배로 건너면 홍주·면주 등 여러읍으로 통하는 첩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영웅바위는 조선 성종 때 편찬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영웅암(令翁巖)으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영웅암(令翁岩)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이 부근은 삼국시대부터 나루와 포구가 발달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군항(軍港)으로 기록하고 있다. **소사벌**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평택 최고봉인 무봉산(208.6m)과 천년고찰 만기사가 있는 곳. 진위면 동천리.
 아랫말저수지와 사후동저수지, 사후천과 진위천이 마을의 젖줄인 동천리는 1리
 '동추골'과 2리 '사후동' 2개리로 구성되어있다.



무봉산 자락에 자리한 동천1리 동추골은 고인돌과 경주이씨 상서공파의 묘역이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가운데 무봉산을 중심으로 왼쪽에 만기사와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오른쪽 경부고속도로 건너 위쪽이 동천2리 사후동이다. **수사발**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만기사 입구



동천1리 경주이씨상서공파 묘역



평택의 가장 북쪽은 북위37° 08'이다. 진위면 동천2리 사후동저수지 끝 지점이다. 이곳 사후동은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등 3개시와 맞닿아있다.





사후동에서 고향리 넘어가는 치고개에 있는 광은기도원.
이곳은 1970년대 맥카피선교사가 세웠던 사후동수양관이 있던 곳이다.

동천2리 사후동 전경



수어관광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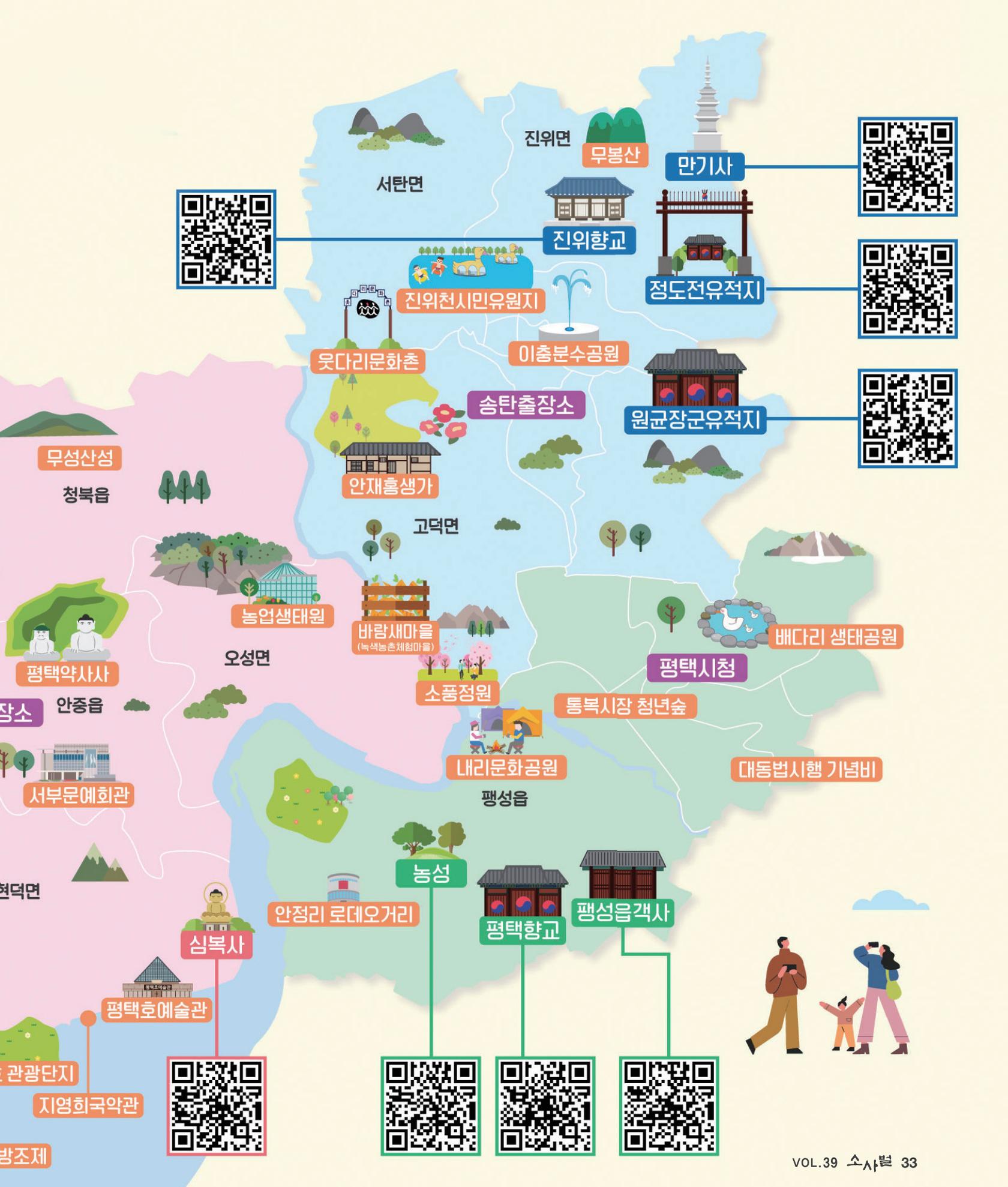
수어로 보는 역사 평택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자료제공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는 2021년부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수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어관광지도'를 기획하고 2022년 8월에 제작 배포했다.

수어관광지도는 농인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평택시의 역사를 수어영상으로 제작한 역사지도이다. 평택시 문화유적지 10곳을 선정하여 농인에게 역사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많은 회의와 답사를 통해 제작했으며 수어관광지도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수어해설영상과 자막을 볼 수 있다. **소사별**





1953~2023: 한미동맹 70주년 캠프 험프리스의 역사를 돌아보다



유범동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사령부 수석공보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동란(한국전쟁)을 겪은 지 벌써 73년이 흘렀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현재까지 70년째 불안한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미동맹의 상징 주한미군, 2022년 한미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는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국 육군 기지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와 근접한 이 기지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이 아직 탄생하기 전인 조

선 시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평택에 기지를 건설하고, 이곳에 제1기병대와 제26기동부대 등을 주둔시켰다. 이는 1919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군이 평택시민을 강제 동원하여 세운 군사 비행장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평택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철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1950년 6월 25일, 중공과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괴군의 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주요한 기지 중 하나로 남아 있게 된다.

처음에 K-6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평택비행장을 의미하는 미공군의 식별번호이다. 이 식별번호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 오던 한반도내의 비행장 이름에 미공군이 코드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면서 유래되었으며, K는 Korea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미공군 오산기지는 오산리 비행장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K-55로, 서울(영등포)비행장은 K-16으로, 부산비행장은 K-1으로, 대구비행장은 K-2로, 군산비행장은 K-8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한편, 캠프 험프리스의 비컨 힐 (Beacon Hill) 추모/기념 공원에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민간인, 계약업자, KATUSA, 한국인 직원 등과 같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비가 있는데, 이 기념비 중에 벤자민 K. 험프리스 준위의 추모비가 눈에 띈다.

캠프 험프리스는 한국전 이후 통상 K-6로 불리우다가 1961년 11월 13일 임무 수행 중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한 벤자민 K. 험프리스 준위를 기리기 위해 1962년도에 명명되었다.



벤자민 K. 험프리스 준위 추모비. 2023년 2월 28일 전라안보동맹 투어에 참가했던 한미동맹협회 (Association of Korea-America Alliance)에서 헌화한 추모화환이 놓여있다.



한국전과 캠프 험프리스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유범동 수석공보관



험프리스 여사와 황손 이석씨, 경기민요전수자 방인숙씨가 청담문화원에서 있었던 주한미군을 위한 문화공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의 미망인 베티 N. 험프리스 여사가 2007년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침 훈련기간이라 많은 군인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환대속에서 안정리 로데오 거리 관광, 청담문화원공연 관람, 송탄/신장리 쇼핑몰 관광, 아산 민속박물관 관람 등을 마칠 수 있었다.

그녀는 현재 93세로 생존해 있으며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고 있다. 베티 N. 험프리스 여사는 다시 한번, 2007년 캠프 험프리스 방문시 환대해 주신 험프리스 기지사령부와 지역사회의 굿네이버 지도자 및 주

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메신저 메시지로 인사를 전했다.

벤티 N. 험프리스 여사는 메신저 메시지에서 내가 벤을 처음 만났을 때는 1942년도로, 나는 12살 이었고, 그는 거의 14살에 다다를 때였다.라고 회고한다. 그 당시 벤이 벤티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에는 10대의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이 묻어 나온다. 이 편지 사본이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사령부에 보관되어 있다.

1943년, 이제 막 14살이 된 소년 Benjamin이 12살 소녀 Betty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Dear Betty,

I am writing you this letter to tell you I love you greatly, and that I hope that you half that way about me. I think of you at night and most of the time in school. I guess you don't like me that much because, I have only kissed you once on Jan 04, 1943, 8:30 p.m. Monday since the time I firstly got to know you at the party and ever since I have got to like you a lot, and am glad of it for you are a lot better than Lois and a lot prettier and good looking. I know you won't get this but, well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so good bye for now.

Your Bennie Kent Humphreys

“사랑하는 벤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당신이 나에 대해 절반 정도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밤에 그리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1943년 1월 4일 오후 8시 30분에 단 한 번만 키스했기 때문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파티에서 당신을 처음 알게 된 이후로 그리고 당신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고, 당신이 로이스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예쁩니다. 당신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글썄, 나는 지금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베니 켄트 험프리스”

Dear Betty,
Hope you aren't too mad at me
for not coming to the skating ring
Bob will explain.
Love forever,
Bennie Kent Humphreys esq.

“친애하는 벤티,
스케이트장에 오지 않는다고
너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밤이 설명해줄 겁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베니 켄트 험프리스 esq

또 다른 쪽지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아마도 스케이트장에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듯하다.

이렇게 벤의 안타까운 죽음과 벤티와의 애뜻한 사랑 얘기가 녹아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사령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수비대/기지 사령부의 임무는 기지내 전투부대에 대해 오늘날 즉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지원하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기지내 부대와 지역구성원들의 후생복지도 맡고 있다. 즉, 캠프 험프리스 라는 한 (군사)도시를 총괄 유지, 보수, 관리, 운영하는 '시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기지방어사령부 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인 면에서 현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심축인 평택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발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 중심에 평택이 있다.



2023년 현재 미 육군 험프리스 사령부에 전시되어 있는 벤과 베티의 어린시절 사진, 결혼 후 사진, 벤자민의 초상화, 유물 그리고 어린 시절 나눴던 사랑의 편지 사본 보관함

최근의 한 연구논문 (2022)에 따르면 지역사회간 상생발전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 (신뢰, 상호규범, 네트워크, 등) 인데, 그 중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주한미군과 평택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양 지역사회의 상생협력활동 (협력적 거버넌스와 상호교류활동)에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핵심이다. 정리하면, 지역사회간 상생발전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국가안보가 확보된다고 본다. 평택시민은 이제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주한미군을 매개로 해서 평택시와 이웃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인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캠프 험프리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느끼는 소회이다. **소사별**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 명주대상

이성품익기결리

문화기획부



제1회 술 그리다 전통주 시음회



평택살로 빛는 평택의 전통주 전시회

2022년 11월 26일에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쌀을 이용한 제12회 대한민국 명주대상이 평택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명주대상은 풍류를 통해 세대·지역 간 소통과 화합, 나아가 술 빛는 사람들과 마시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술 문화 축제다. 이번 명주대상에서 탁주부문 금상을 받은 김의조씨를 만났다.

그는 평택에서 귀촌하여 제2의 삶을 시작했다. 귀촌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평택시 슈퍼오닝농업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7개월 동안 기간제로 근무했다. 이후 평택시 평택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5060 신중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가양주연구소에서 전통주를 배웠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전통주 동아리를 만들어 매달 1번씩 모여 각자 만든 술을 시음하며 공부를 했다.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 명주대상 탁주부문 금상을 입상한 김의조

그러던 중 지인들의 권유로 대한민국 명주대상에 참가했다. 그가 오성뜰막걸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을 다 품기도 하며 그가 농사를 짓는 곳이 오성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출품작을 만들 때, 덜 달고, 자극적이지 않은 보통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참가자 60대1 경쟁률을 뚫고 금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는 “앞으로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마을을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어르신들과 함께 소일거리를 만들어 경제활동도 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는 평택으로 귀촌한지 5년이 되었다. 노후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시민정원사, 도시농업관리사, 식품가공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을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공부를 하고 있다. 그와 인터뷰를 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은 노후를 위한 최상의 양식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은퇴 후 다양한 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그를 보며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소사별**



오성뜰막걸리 제조중인 김의조



독립서점 생활방식



신평 활력 프로젝트
22
신평 도시재생
서포터즈
: 생활방식

책방앞에서
틈여금지!
농민에게
해로운음!

Hi, 청년서점
2022.09.19-10.10
THIS IS A NEW!
MYEONG & DONGKI ST.

파란기둥 독립서점

생활방식

이예슬 생활방식 책방지기

독립 [獨立]이란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됨을 뜻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이 단어는 주체적이고 자유롭다는 느낌이 강하다. 독립영화가 자본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감독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처럼, 독립서점도 자본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주체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서점은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정의되지만, 넓게는 영리목적보다 책방지기의 취향으로 큐레이팅된 서점을 뜻한다.

생활방식은 2019년 7월에 오픈한 독립서점으로, 평택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입고하는 것에 운영목적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이 책방지기의 취향에 따라 꾸러지듯 생활방식도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묻어 있는 작은 공간이다. 이곳은 아지트 혹은 개인 서재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그 중에 생활방식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책에 적혀 있는 쪽지다. 이 쪽지는 책에 대한 책방지기의 감상이 적혀있고, 작은 쪽지를 통해 작가와 책방지기와 독자가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작업이다. 실제로 손님들에게 쪽지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다.



책방지기와 책방고양이



《계간 생활방식》

독립 서점을 오픈하게 된 계기는 단순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 독립서점의 특성이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예전부터 로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책방을 운영하면서 청년, 문화예술, 공동체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진행했다. 그 기간 동안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왔고, 고민 끝에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로컬매거진을 출판하기로 마음먹었다.

로컬매거진을 기획하면서 크기, 형태, 출판 횟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다른 로컬매거진을 참고하면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책의 형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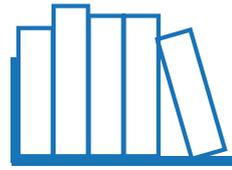
해 탐구했다. 제본방식, 종이의 질, 매거진의 크기와 단가를 생각하면

서 나온 결론은 작은 크기로 계간지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렇게 《계간 생활방식》이 만들어졌다. 2022년 6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 인터뷰이의 연령, 직업,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

독립서점 사장님이 만드는 독립출판물이면서 지역서점에서 만드는 로컬매거진이 《계간 생활방식》의 방향성이다. 현재 로컬매거진을 제작하는 것은 100% 혼자 힘으로 하고 있다. 기획, 인터뷰, 제본 포함 출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개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꾸준히 출판하는 것이 목표이고, 자리를 잡으면 정기 구독이나 기고글을 받을 생각이다.



책방지기 감사문



독립서점 생활방식

독립 서점이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다.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동네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아 남녀노소 드나들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생활방식'은 운영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기획했던 모임과 워크숍도 많았고,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해봤지만 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러한 역할은 작은 도서관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독립서점에서 도서관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자리잡지 못 했었다. 독립서점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운영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생활방식'은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입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물건들을 같이 두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회적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었다. 이렇게 방향을 조금 틀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생활방식은 오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기적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목표가 생겼는데, 생활방식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며 오랫동안 잘 유지시키는 것이다. 책방지기의 역할 중 하나는 책방에 스쳐간 사람들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문장은 나에게 큰 힘이 됐고 생활방식을 계속 운영해야할 이유를 주었다. 지나갈 때 마다 꼭 들려주시는 분, 책을 사지 않더라도 안부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 가끔씩 와서 오랜 시간 책을 읽고 골라서 가시는 분. 이름과 나이는 몰라도 얼굴이 익은 분들의 손길과 시간이 묻어있는 이곳을 지키고 싶다. 그게 나와 생활방식이 운영되는 이유다. **소사별**



생활방식 책장



생활방식을 지키고 있는 어리

평택예술문화협동조합

이두희 평택예술문화협동조합장 인터뷰

평택예술문화협동조합은 지역예술가들이 모여 평택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단체로서 이두희 조합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평택예술문화협동조합은 언제 만들었나요?

2018년 8월 1일에 시작하여 현재 1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예술분야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나요?

민화, 천연염색, 구방공예, 가죽공예, 목공공예, 다도, 스트링아트, 전각(수제도장), 서예(캘리그래피), 아로마, 여행, 뜨개질의 지역예술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모이게 됐나요?

제가 지역축제에 참여하며 평택에도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끼리 축제를 통하여 서로 알고 지내다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지역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시민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여주고,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함께 하는 마음, 같이 하는 예술을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의료봉사자 예술치유체험, 매달 외국인주민을 위해 나만의 도장 만들기과 가족 손거울 만들기를 한국문화체험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Open your hart, open your art’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저희가 평택 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조사를 해보니 약 5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옷칠, 유리공예, 목공예, 천연염색을 총 16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사실 주목적은 조합원들이 그들에게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Open your hart, open your art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함께 하는 마음, 같이 하는 예술

‘함께 하는 마음, 같이 하는 예술’

현재 평택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으로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2021년 평택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 사람들은 평택에 가장 늦게 정착한 사람들이지만 봉사, 기부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민주주의 집회가 끝난 후 10개의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가까운 계획은 조합원들이 협동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4년 동안 한 번도 조합원들과 전시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울리는 평택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제작하는 것입니다. 평택을 방문하는 사람이 상품만 보고도 평택에 대한 이미지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평택관광상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지역에서 공방거리를 만들고 있듯이 우리 지역에도 공방거리를 조성하여 시민 모두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소사별**



옷칠이야기

전진현 옷칠화 작가

저는 옷칠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전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서 예전부터 나전칠기 쪽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전칠기, 자개장, 옷칠공예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옷칠화를 알리기 위해 개인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옷칠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동양화 전공자로서 작품의 보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마침 옷칠재료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옷칠 스승님께서 제게 “옷칠작품은 천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혀 그 때부터 시작된 옷칠과의 인연이 현재 17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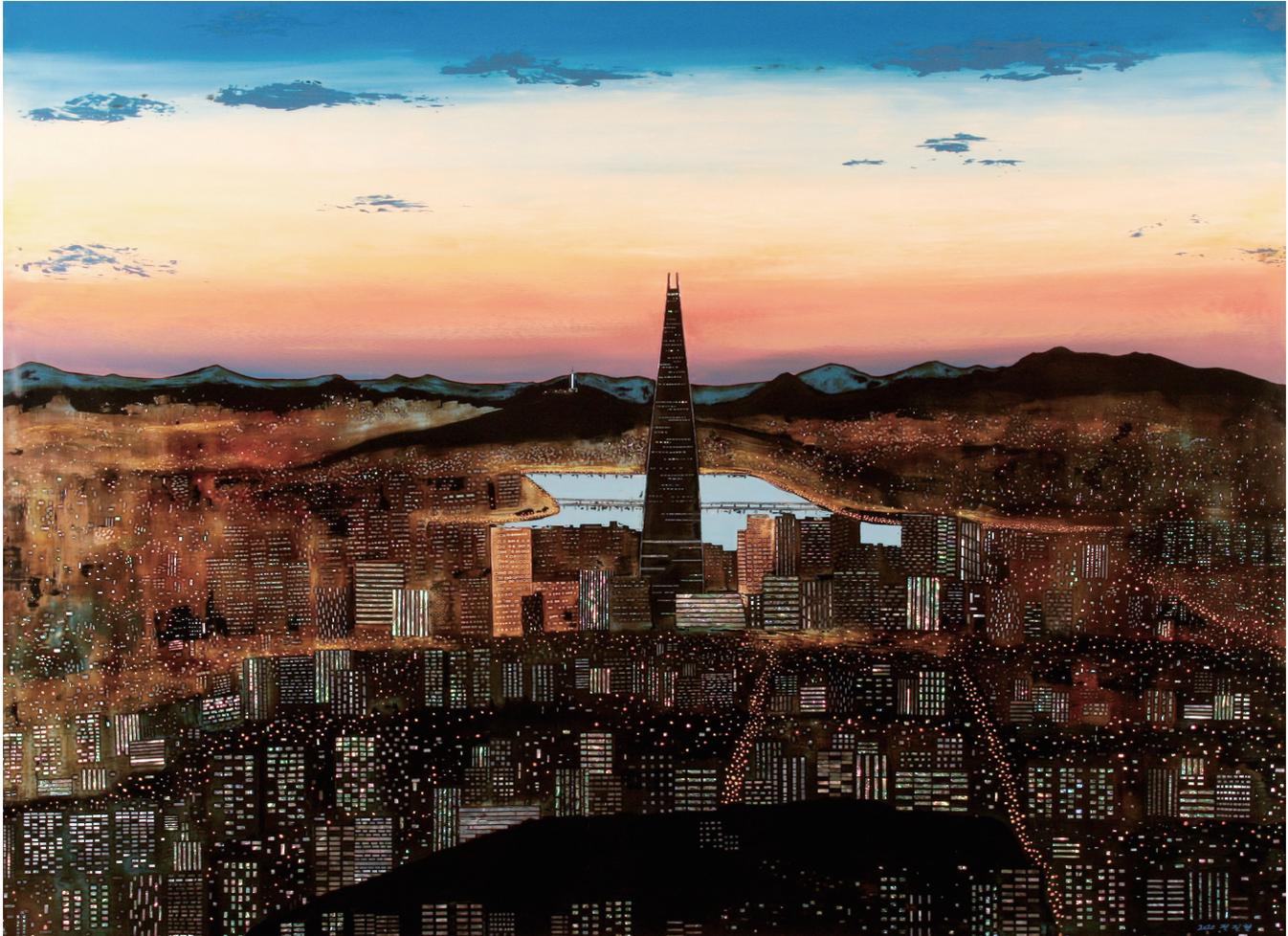
옷칠은 다루기 정말 힘든 재료입니다. 작업과정부터 경화(건조)되는 상황, 옷오름까지 쉬운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작업과정 중에 처음 칠할 때와 경화된 상태의 색 톤도 많이 달라지고, 칠하기와 연마하기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노동을 엄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옷칠은 온도, 습도에 민감해서 경화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오름이 참 힘들게 합니다. 옷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간지럽고 심하면 수포가 생기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저는 옷을 거의 타지 않아 작업하는데 있어서는 타고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루기 힘들지만 그 이상의 성취감과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옷이 많이 오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재료를 다루는 것이 큰 매력이고, 전통적인 재료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라 생각하기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옷칠과 함께 하려 합니다.



인형 2013 (160.1x90.5cm)
자개, 은박, 옷칠채색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상위권으로 보고가 될 정도로 성인이 되기 전 극도의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형, 꼭두각시 시리즈는 어린아이와 꼭두각시의 형상으로 주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심각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부모들은 아이를 향한 과한 욕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고 자신의 인형으로 만들어 아이의 꿈을 빼앗아 아이는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인형과 같은 삶을 산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시-숨쉬다1 (120x90cm)
자개, 옷칠채색

이 작품은 자개와 옷칠의 여러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회색빛의 시멘트 건물처럼 차갑고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며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고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물감을 짜놓은 듯 알록달록한 하늘이 그려지고 차갑기만 했던 건물에는 하나 둘씩 불이 들어오며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시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이 고된 삶으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구사냥 (134x69.2x27.5cm)
종이박스, 자개, 건칠기법

환경과 생명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시작한 작품으로 첫 번째 입체 작품입니다. 버려지는 택배박스를 잘라 붙여 고래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천을 여러번 겹쳐 붙이고 옷칠을 반복적으로 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코로나로 인해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택배박스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그 쓰레기들이 많은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끝내는 인간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동물, 인간, 지구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소사벌**

절의 종을 만드는 범종사 : 채동희 범종사 대표 인터뷰

천년을 이어온 소리, 범종

안노현 기자

다양한 종 가운데서도 사찰에서 쓰이는 종을 범종이라 한다. 범종은 운판, 목어, 북과 함께 불교에서 예불에 쓰는 법구사물(法具四物)이다. 불가에선 그 소리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중생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한다. 사찰마다 종루에 달린 범종을 찾아볼 수 있으나 범종을 주조하는 곳은 국내에서도 손에 꼽힌다. 그 가운데서도 국내 대표 제작사로 꼽히는 평택 범종사 채동희(62) 대표를 만나 범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어봤다.



채동희 범종사 대표와의 인터뷰 모습



심복사 타종식



심복사의 범종

불혹의 세월 동안 범종 제작

삼덕초등학교에서 굽이굽이 도로를 따라 고잔5리 버스정거장까지 2.6km. 그곳에서 다시 1차선 비포장 도로를 따라 1km가량을 더 들어가 다다른 곳에 범종사가 있다.

범종사는 1993년 인천을 떠나 청북읍 고잔리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세 해 동안 공장을 지어 1996년부터 평택에서 범종(梵鐘)을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 범종을 제작하는 채 대표가 처음 범종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3년. 당시 인천에서 비철금속 주물에 종사하던 그에게 국내 범종 제작 업계 일인자이자 전 범종사 대표인 김정수(법명 철오) 종장(鐘匠)이 함께 하자고 권유하면서다.

그는 “예전부터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우연히 선생님(김 종장)과 만나 권유를 받고 일을 시작했다”며 “종

을 만드는 것이 좋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이듬해 불국사 석굴암의 통일대종주조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범종 제작에 투신했다. 어느덧 종을 만든 지도 마흔 해가 넘었다. 그동안 범종 수백 개가 그의 손에서 태어나 매일 아침저녁으로 세상을 깨우고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지난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한국이 미국에 선물한 우정의 종(Korean Bell of Friendship)도 범종사에서 만들어졌다. 우정의 종은 그의 스승 김 종장의 손에서 탄생했고, 38년 후인 2014년 그가 보수하면서 다시 태어났다.

청북 덕지사와 지금은 사라진 해운사 등 평택지역 사찰의 범종도 그의 작품이다. 지난해 12월 17일 범종불사 회향식과 타종식을 마친 심복사의 범종도 마찬가지다.

그는 “신흥사, 보리암, 백담사, 오세암, 만해기념관은 물론 금강산 신계사의 종도 범종사에서 제작했다”며 “웬만한 한국 사찰의 범종은 모두 여기에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자부했다.

전통 공법이 소리 더욱 선명

범종을 만드는 방식은 주조다.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든다. 한국 범종은 동종(銅鐘)으로 구리와 주석이 재료다. 이 둘을 용해로에 넣고 1200~1300℃로 5시간에 걸쳐 녹인 후 도가니에 옮겨 붓는다. 이 쇳물을 바로 쓰진 않는다. 우선 불순물과 가스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구리는 1300℃가 넘어가면 질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지 않고 거푸집에 부으면 제대로 종을 만들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가스를 제거할 땐 공기보다 무거운 아르곤을 주입하지만 범종사에선 전통방식대로 생소나무·참나무를 넣어 가스를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범종사에선 회전형 주조와 밀랍 주조 두 가지 공법을 사용한다. 회전형 주조 방식은 둥글게 흙을 발라가며 틀을 만든 후 문양을 찍어 거푸집을 만드는 방법이다. 흙을 둥글게 골고루 바른 뒤 창호지를 붙이고 문양을 찍어낸 후 솥을 피워 이레 동안 건조한다.

밀랍 주조 방식은 전통적인 기법이다. 황토벽돌을 쌓아 안거푸집을 만들고 그 위에 밀랍을 씌우고 문양을 조각해 종 모형을 만든다. 여기에 백토, 황토, 석회, 객토를 배합한 주물사(鑄物沙)를 발라 겉거푸집을 만들어 한 달 이상 자연건조한다. 이후 800℃ 온도로 불에 구워 밀랍을 녹여 제거하고 그 틈에 쇳물을 주입한다. 최근엔 주물용 세라믹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건조시간을 일주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전통 재료의 건조 조건은 보통 온도 20℃, 습도 60%가 최적이기에 1~2월과 7~8월엔 범종을 제작하지 않는다”며 “너무 덥거나 추우면 흙이 갈라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라믹을 쓰면 시간이 단축되나 소리의 선명도는 밀랍 주조가 더 좋다”며 “다만 밀랍 주조는 오래 걸리고 금액이 비싸 일반적으로 회전형 주조 방식을 택한다”고 부연했다.

완성까지 반년에서 한해 소요

쇳물을 붓고 거푸집에서 종이 만들어지기까지 이틀. 이후 보름에서 스무날을 다듬어야 범종이 완성된다. 2.4톤가량의 종은 문양 디자인, 조각 등을 거쳐 종이 나오기까지 반년이 걸린다. 10톤이 넘는 종은 꼬박 한 해를 소요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은 주로 신라 시대 종을 모델로 하고

있다. 신라 시대 범종인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과 상원사동종이 한국 범종의 전형적인 양식과 형태인 까닭에서다.

신라시대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종 제일 윗부분에 달린 고리 용뉴(龍鈕)와 음관(音管)인 음통(音筒)이다. 용 머리에 두 발이 달린 모습으로 조각돼 있어 여기에 줄을 연결해 종을 매단다. 용뉴 옆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음통이 달려있다. 특히 음통은 한국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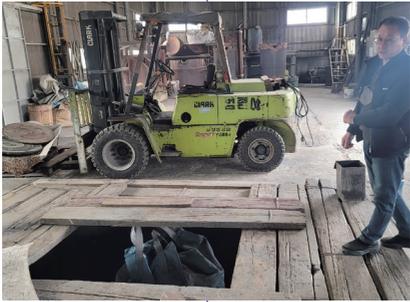
반면 조선 시대 범종에선 이 음통을 찾아보기 어렵다. 불교 문화 쇠퇴와 임진왜란으로 전통 기술의 맥이 끊기는 등 변화를 겪은 까닭이다. 다만 조선 후기 작품 가운데 음통이 달린 범종도 남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범종을 주조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이대로 스무 해가 지나면 기술 자체가 사장될 수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종장 대부분 연세가 많은 데 비해 배우려는 사람 없다. 만들려는 사람이 없으니 공장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범구 제작을 정부나 종단 차원에서 끌고 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그는 “범종을 만들 수 있는 한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특히 기회가 된다면 범종사 박물관을 세우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창고에 가면 아직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종들이 있다”며 “박물관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범종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범종은 이렇게 만들어져왔다고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소사별**



범종 제작과정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한 문화유산정책 방향

김경탁 평택시 문화유산관리팀장

그동안의 노력

그간 평택 곳곳에 산재해 있던 문화유산¹⁾ 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 낸 열정적인 분들이 계셨고, 그 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유산들이 새로운 빛을 보아 왔다.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탬 필요성이 있었고, 그동안의 노력이 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로 비지정 문화유산²⁾에 대한 조사를 2022년 진행하였다.

- 1)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상에 지정문화재와 그 외의 문화재로 구분하는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로 나뉘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국가등록문화재와 도등록문화재 제도가 신설되었다. 문화재에 대한 정의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포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문화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는 최근 문화재청과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용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 2) 비지정문화유산(비지정문화재)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지정된 문화유산 외의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새로운 발걸음

이번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는 평택에서 현재까지 조사되거나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화유산을 총 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은 지상에 노출된 건조물·역사유적·보호수를 비롯해 동산문화재와 같은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를 넘어 근현대까지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재까지 발간된 기존 자료를 토대로 조사 목록과 수량을 파악해 중복검토 후 재정리하여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에서는 현황파악과 함께 멸실이나 과도한 변형 등을 진단하고 사진자료를 기록으로 남겼다.

4차례에 걸친 검증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629건의 목



CPX훈련장(벵커)



부용산 방공호



선말산 방공호

록이 작성되었고 분석 가능한 393건을 선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례에 걸친 지역전문가 회의로 69건의 지정 가능성이 높은 목록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문화유산별 전공자의 자문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문화유산으로 지정 가능한 24건을 선정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산재해 있던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구축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

다. 더불어 등급분류³⁾를 시도함으로써 앞으로의 문화유산 지정 기준을 설정하는 기틀까지 다지게 되었다.

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

이번 조사를 통해 300건 이상의 문화유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개별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3)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유산을 국가·경기도·평택시 지정, 기록가치가 있는 것 등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용이·죽백동 유적(주거지)



용이·죽백동 유적(항공사진)

역사적 맥락과 보편성·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예산과 인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순차적으로 현실 여건에 맞춰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은 문화유산에 대해 심층 조사를 거쳐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정이 되면 예산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도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신규 지정과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과 병행해 지정 가치는 다소 낮지만 DB화와 기록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와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단계에 해당하므로 아직까지 가치의 크기를 밝혀내지 못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심화조사를 통해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와 의미를 찾아가고자 한다.

문화유산의 보전대책으로 지정과 조사도 중요하지만 시



용이·죽백동 청동기유적(한호)

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도 큰 역할 중 하나이다.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는 현재까지 지정된 32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지정될 문화유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관리 대상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확장적 개념과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지정과 관리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인력은 충분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과 관리의 대상이 늘어나고 세심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문화유산정책이 나아갈 방향

평택시는 최근 외형적인 성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 추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과 동반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평택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족들의 휴식공간이자 아이들과 함께 거닐면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



진위현 전(궐)패



진위현 전(궐)패 바닥 명문

런 공간 말이다.

이번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문화유산 정책 방향의 하나의 기준틀을 마련한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해야 다양한 응용도 가능하듯이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을 뿐이다.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단거리 경주보다는 꾸준한 속도로 목적지까지 향하는 마라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마음이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소사별**



자미산성 북문지 일대 성벽



자미산성 집수시설



자미산성 출토 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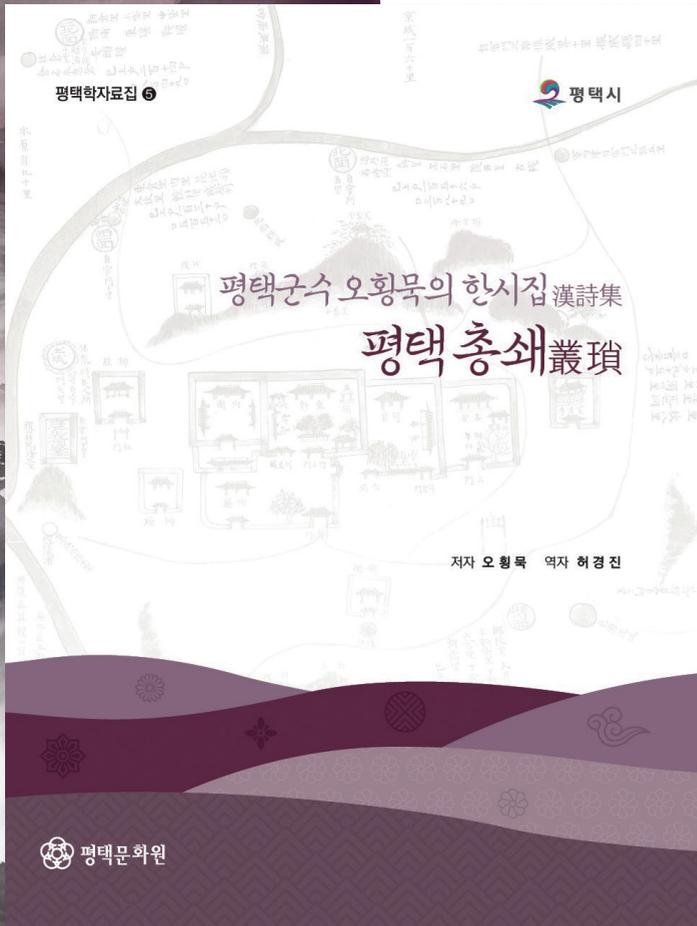


자미산성 전경

평택 근대사 자료창고

평택 총쇄

《평택 총쇄》 발췌



《평택 총쇄》 표지

2021년 평택학자료집4-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새언》에 이어 2022년 평택학자료집5-평택군수 오형묵의 한시집 《평택 총쇄》를 발간하였다. 2023년에는 오형묵의 평택군수 시절 산문을 번역·발간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평택 총쇄》에서 해제와 시를 발췌하였다.

평이당에서 바로 시를 지어 감회를 보내다

(平易堂 賦卽…事遣懷)

交換觀時物 철 따라 경물이 바뀐 것이 보여
遣懷平易堂 평이당에서 감회를 푸네.
鳳仙粘白雪 봉선화에는 흰 눈이 붙어 있고,
山蔣掛紅囊 즐풀에는 붉은 주머니가 달렸구나.
地暖鶯猶晚 땅이 따뜻해지자 피꼬리는 더욱 늦고
天晴鶯自忙 하늘은 맑아지자 제비는 절로 바쁘네.
何勞消日靜 어찌 수고롭게 고요히 소일하라
琴韻奏疎篁 성긴 대나무 숲 소리에 거문고로 운을 타네.



‘평택군수 오형묵의 한시집 《평택 총쇄》라고 제목을 붙인 이 책의 원제목은 《총쇄(叢瑣)》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총쇄》 24책 가운데 제13책과 제14책이 평택에서 지은 한시이다. 그는 모두 14책이나 되는 평생의 시집에서 채원(菴園), 채인(菴人), 택방(澤舫)이라는 호를 썼는데, 평택에서 지은 한시에도 자주 보이듯이 그는 평생 꽃을 사랑한 시인이었으므로 젊을 때부터 채원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택방이라는 호는 평택에 부임하여 만들었기에 ‘택(澤)’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그 호의 뜻을 설명하는 ‘택방설(澤舫說)’도 평택에서 지었다. 4년 동안 모두 799수를 지었으니 이들에 한 수씩 지은 셈이다.

오형묵(吳挀默 1834-1906)은 평택군 관아에 머물며 회고록 식의 시 <근래의 몸과 집의 경력을 추려 뽑아서 시 한편을 짓다>를 지으면서 “아홉 고을의 치적이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술회했는데, 정선, 자인, 함안, 고성, 지도, 여수, 진

보, 익산, 평택에서 지은 시집이 바로 《총쇄》의 제1책부터 제14책까지 실려 있다. 20년 동안 종4품 군수, 종6품 현감, 종3품 부사로 품계와 관계없이 아홉 고을에 잇달아 부임하였는데, 평택에 가장 오래 있으면서 종2품으로 승급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제13책에는 1902~1903년에 지은 시 324제 386수가 실려 있는데, 평택팔영(平澤八詠)을 비롯하여 평택군 관사정원에 여러 가지 화초를 심고 가꾸는 중에 지은 시, 망한사(望漢寺)를 방문하여 지은 시, 십의대(十宜臺)를 신축하고 그곳에서 흥취를 즐긴 시, 두리서당 개접(開接) 시 등이 있다. 제14책에는 1903~1905년까지 지은 시 328제 413수가 실려 있는데, 평이당(平易堂)에서 모여 읊은 시를 비롯하여 평택 토지조사와 지계, 환곡, 직산 민란 등에 대하여 지은 시들이 실려 있다.

그는 평택에서 관직을 마치고 곧바로 세상을 떠났는데,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등이 맞물려가는 시기이기에 명헌태후, 순명왕비, 윤용선, 민영환, 조병세 등에 대한 만사가 실려 있으며, 외세의 침입에 비분강개하는 시가 보이기도 한다. 팽성이라는 고을 이름과 연관하여 도연명의 시에 차운하여 짓거나 자신을 도연명과 동일시하는 시들을 지은 것이 다른 고을에서 지었던 시들과 가장 달라진 점이다.

이 시집에 실린 마지막 시는 평택군수 임기를 마치고 군청을 떠나는 날 관아를 둘러보며 지었는데, <정원의 풀 하나 돌 하나를 둘러보니 나의 정력이 이르지 않은 것이 없기에 느낌을 쓰다>이라는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돌 하나 꽃 하나에도 애정을 가지고 평택을 다스렸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원의 풀 하나 돌 하나를 둘러 보니
나의 정력이 이르지 않은 것이 없기에
느낌을 쓰다

(周覽庭園 一草一石 無非我精力所到 因感作)

今朝離恨轉堪悲 오늘 아침 떠나는 한이 더욱 슬프니
往事悠悠便感時 지난 일들이 유유히 느껴지누나.
醉石重酬參古蹟 취석은 고적을 참조하여 다시 세우고
香磐新舖藉良資 향반은 좋은 자질이 살려서 새로 펼쳤네.
亭臺建築因其勢 정자와 누대는 지세에 따라 건축했고
花卉栽培得所宜 꽃과 풀들은 본성을 살려 재배하였네.
驛路何須勞跋涉 역으로 가는 길이 어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랴?
還携琴鶴喜相隨 돌아갈 때 거문고와 학만 가지고 기쁘게 따라 가리라



평이당(平易堂)

慈愛爲治化信誠 자애로움으로 다스리면 믿음과 정성으로 교화되고

推將孝友得權衡 효와 우애를 추장하면 민생의 균형을 얻네.

委輸官事如家事 관아의 일을 맡겨 행하는 것을 집안일처럼 하고

審察民情若己情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를 내 마음처럼 해야 하네.

才補有由方寸地 사방 작은 땅을 말미암아 재능 있는 자를 보임하고

心懸莫越半分程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일정의 반을 넘지 않아야 하네.

春蘭秋菊俱難闕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는 다 빠지기 어려우니

然後期圖平易成 그런 후에 기약하여 평이하기를 도모하리라.

그는 뛰어난 행정가나 시인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군수이자 시인이었기에 부지런히 평택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일하고 시를 썼다. 그의 시집을 들고 취석, 향반, 시경, 일섭원, 소오현, 십의대, 평이당, 오류관, (강산)일초정 등 그가 이름 지은 유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땅에 절반쯤 묻힌 바위에서 오횡목이 새긴 바위 글씨들을 찾아낼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평택은 근대도시로 발돋움하였다. <극아를 보내고 일초정에 올라 차가 가는 것을 보며 읊다>라는 시에 보이듯이 떠나는 손자의 뒷모습을 동구 밖에서 배웅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평택군청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며, <정거장에서 극아를 만나고, 이어서 또 일본 대사를 영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절구 두 수를 짓다> 등의 시를 보면 서울과 지방, 외국이 교류하는 평택 정거장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평택군수 오횡목의 정무일기에도 그랬지만 이 시집에는 수많은 평택의 옛 동네 이름들, 평택 시민들의 백 년 전 조상 이름들이 보인다. 내년엔 평택군수 산문집까지 번역 출판되면 오횡목의 다양한 저술들이 120년 전 평택의 근대사 자료창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소사별**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안정리, '서울상사'를 아시나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비가뻘뻘 이쁜것만 팔아요

1970~80년대 기지촌 경기가 좋을 때 안정리에만 '한희양행', '태양양행', '서울상사' 등 20여 개의 양품점이 있었다. 물자가 귀하고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 멋부리던 여성들과 기지촌 직업여성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양품점. 상인들은 서울 남대문 시장에 올라가 물건을 사다 팔았다. 당시 양장점(의상실)은 맞춤복 전문, 양품점은 기성품 의류와 여성 잡화등을 취급했다. 읍내 5일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던 곳이다.

캠프험프리스 정문 앞 풍경(1970년대)



박수남의 화성국민학교 제1회 졸업사진(1950)

‘서울상사’ 박수남과 이목규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안정리에서 ‘서울상사’라는 양품점을 운영했던 박수남(1938년생)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가 고향이다. 지금은 수몰되어 사라진 화성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1956년 공주 마곡사가 있는 동네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평택 지제리 출신 이목규(1933~2002)를 만나 1961년 결혼하고 1965년 시댁의 연고가 있는 평택으로 이주하여 안정리 113-17에 자리를 잡는다. 그곳에서 1987년까지 양품점을 운영하다 세를 주었다. 현재 브룩스라는 상호로 이름만 바뀐 채 운영되고 있다. 다른 가게는 00양행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서울상사라고 명명한 이유는 남편 이목규의 다른 상점과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서울상사 앞 이목규(1975)

이목규는 평택 지제리 용인이씨 집안에서 태어나 운명처럼 박수남을 만나고, 미군부대 종업원을 하다 그만두고 아내 박수남이 ‘서울상사’를 운영하는 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



가족사진(1985)

양품점 뒷방에서 4남매를 키웠어

교육열이 남달랐던 이목규와 박수남은 슬하에 1녀 3남을 두었는데 장녀 이호진은 성동초와 평택여중고, 공주사대를 나와 현재 00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며 장남 이종화는 평택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소장으로 예편했다. 차남 이종혁은 안성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이며 막내 이종관은 평택시청 팀장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가족이다.

이목규는 질병으로 2002년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집앞에서 아버지 이목규와 막내 종관 (뒤로 일성상회 대림약국 대명전자와 한일상회가 있고 앞으로는 국제미용실, 성환상회 맞은편으로 고려전파사 옆 책방, 서울상사, 평택양품, 당진식당이 있었다.(1974)



서울상사 앞 차남 종혁과 막내 종관(1974)



서울상사 옆집 평택양품점에서 신발고르는 박수남(1983경)



서울상사 앞에서 임마누엘어린이집 원복을 입은 막내 이종관(1974)

세월은 갔어도 흔적은 남아

서울상사 자리는 박수남이 소유한 채 세를 놓았고, 현재 '브룩스'라는 상호로 여성양품점의 맥을 잇고 있다. **소사별**



브룩스라는 상호로 운영중인 서울상사 자리에 선 박수남(2023)



2023

평택 달맞이 축제

최승희 평택시 SNS 시민기자단 기자

뜨거운 축제현장 속으로

2023년 2월 4일 토요일에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평택문화원이 주최하고 포승읍 신영2리 마을회에서 주관하는 평택 달맞이 축제가 신영2리 마을에서 개최했습니다. 저와 함께 2023년 평택시 달맞이 축제를 본격적으로 즐겨 볼까요?



웃놀이



LED포토존

다양하고 푸짐한 먹거리

마을주민들이 추억의 군고구마기계를 이용하여 고구마 등을 노릇노릇 구워주고, 아이들이 직접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체험존이 있었습니다. 또한 떡국, 떡볶이, 통돼지 바베큐 등 다양한 먹거리를 아이들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신명나는 공연

실내에서는 창, 민요, 난타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식전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구수한 민요 소리와 신나는 난타 소리에 어깨가 절로 들썩이며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외에서는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팽과리, 장구, 징, 북 등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물놀이에 축제 분위기가 더욱 신명났습니다.



우리가족만의 연을 만들어 날려보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고사리 손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들이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며 실력을 발휘하는 멋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멋진 연을 만들었으니 이제 아이들과 연을 날려봐야겠죠! 어른들도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아이들과 신나게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LED쥐불놀이, 장승만들기, 옷놀이, 부럼깨기 등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원기원문 쓰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에 끼울 소원기원문이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새해소망을 을 적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다양한 소망들 사이에 우리가족의 소망을 담은 소원기원문도 끼워 넣었습니다. 새끼줄에 빼곡히 걸려 있는 소망들은 다 다르겠지만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둥근 보름달이 뜨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올해의 액운은 다 날아가 버리고 가정마다 소망하는 좋은 일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먹거리 쿠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묘년을 맞아 시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소원들을 빼곡히 적어놓은 시민참여형 전시포토존이 있었습니다.

신영2리 마을주민들은 마을의 산업화와 도시개발로 주민들이 흩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주민화합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평택문화원과 손을 잡고 서부의 대표적인 민속 행사로 보존 및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사별**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연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공미술로
웃다리문화촌을 꽃피우다

강수진 웃다리문화촌 팀장

‘조형예술연구’는 옷다리문화촌 이야기가 담긴 조형물을 창작하여 제작·설치하는 공공미술 사업이다. 평택문화원은 2019년부터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형예술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공미술은 공공의 장소에 대중을 위해 설치·전시되는 작품을 뜻한다. 이 개념은 1967년 영국의 존 월렛의 <도시 속 미술(Art in a City)>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예술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향유되는 것에 그치며, 그들이 일반 대중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공공미술의 구체적인 실행은 1960년대 말 미국 정부에서 시작한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The Percent-for-art)’과 국립예술기금의 ‘공공장소의 미술(Art in Public Place)’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이다. 이렇듯 점차 공공미술이 제도화 되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적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공공장소에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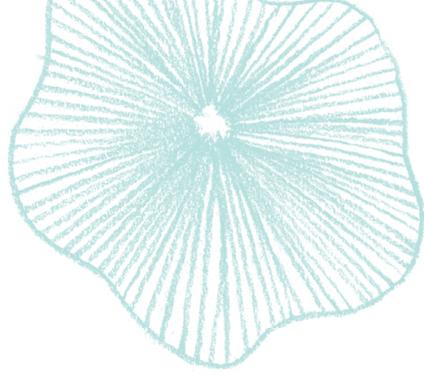
스웨덴 태생의 미국 조각가인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2022)는 일상적인 사물을 확대하고 복제하는 공공미술 설치가로 거대한 풀볼들(Giant Pool Balls, 1977, 뮌스터), 성냥갑(Mistos, 1992, 바르셀로나), 바늘, 실 그리고 매듭(Needle, Thread and Knot, 2000, 밀라노), 떨어트린 아이스크림콘(Dropped Cone, 2001, 쾰른), 스프링(Spring, 2006, 서울), 흡삼(Plantoir, Blue, 2021, 뉴욕) 등 세계 곳곳에서 그의 대담한 작품이 설치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공공미술은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제도화된 범위의 건축물은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서울시에만 2022년까지 약 3,700개 이상의 공공미술품이 설치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이겐 문화가 있는 일상인 도시’, ‘예술인에게 예술하기 좋은 도시’, ‘관광객에게 문화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시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고, 복잡한 도시공간에 예술적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아내었으며, 사라져가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향유하는 공공미술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건축물 미술품의 사례는 2002년 설치된 조나단 보롭스키(Jonathan Borofsky)의 망치질하는 사람(Hammering Man)이 대표적 작품중 하나이다. 이 조형물은 서울 도심 속에 설치되어 망치질하는 노동자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형상화해 노동의 가치와 고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현대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평택문화원 옷다리문화촌의 공공미술은 올해 5회째를 맞은 사업으로 옷다리문화촌이라는 공간의 과거와 현재 모습에서 느낀 작가들의 연구과정과 예술성을 담아 스토리가 반영된 창의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관람자들은 정문, 운동장, 옥상, 뒷마당에 설치된 조형물을 통해 익숙한 공간에 예술이 담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로는



〈나비의 꿈〉 2019

박인성, 조혜경, 조재영, 김종영
서주현, 권다혜, 이종규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도장
2445×3160×1600mm



첫 번째 옷다리문화촌 조형예술연구 작품인 〈나비의 꿈〉은 옷다리문화촌에서 활동하는 꼬리명주나비의 움직임과 쥐방울덩쿨의 기하학적 선을 인체의 손과 결부한 작품으로 생명의 순환과정을 노래하며 꿈을 키워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인생(The Life)〉 2020

양대원

철판 위에 도색
280×230×11cm

두 번째 조형예술연구 작품인 〈인생(The Life)〉은 (구)서탄 초등학교 금각분교(현 옷다리문화촌)에서 행해졌을 과거의 운동회를 상상하면서 시작되었다. 학교의 동문들을 비롯하여 지금의 옷다리문화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유년 시절 운동회 종목 중 하나인 줄다리기를 모티브로 삼아 작가의 작품 속에 늘 등장하는 동글인 캐릭터를 적용하였다. 그때의 추억을 소환시킴과 동시에 현재에도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줄다리기의 고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 은유적 표현으로 작가는 그들의 삶에 위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숲을 향하여〉 2021

신예진

UV Film,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크리스탈레진, Q Block
5000×3000×2700mm

세 번째 조형예술연구 작품인 〈숲을 향하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자연의 모습이 아닌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법한 미지의 세계를 상상한 작품이다. 끈임 없이 운동하던 자연의 모습들을 재해석하고 그 사이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갖가지 개체들을 함께 구성하여 작가가 머리속으로 그리던 자연의 모습을 환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드러냈다.



〈Geometry Bull〉 2022

장원모

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 페인트
3000×1600×2000mm



네 번째 조형예술연구 작품인 〈Geometry Bull〉은 예로부터 웃다리 농악이 농촌에서 집단노동이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주되는 음악을 모티브로 선조들의 농업의 동반자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힘찬 황소의 모습을 기하학의 도형들로 재구성하며 단순미로 표현하였다. 또한, 농업에 필수인 물의 색상을 담아내 황소의 생명력을 더하였다.

이렇듯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조형예술연구'사업은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개념인 공간과 관련한 작품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장소를 한정 짓지 않고 공간 전체가 작품이 되어 지역공동체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조형예술연구'사업을 통해 웃다리문화촌을 찾는 관람객이 자연에 전시된 작품을 만나며 일상적인 환경속에서 예술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사별**

2022 평택학 시민강좌 중계

문화사업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평택학 시민강좌가 3년 만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민강좌는 평택박물관의 건립을 기원하며 '좋은 박물관은 어떻게 만드나'를 주제로 하여 박물관을 개관 경험이 많은 박물관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강의를 통해 박물관에 건립의 과정과 함께 앞으로 건립될 평택 박물관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주었다. <소사벌>에서는 강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자세한 사항은 평택문화원 홈페이지에 자료집이 게재되어 있다.



11월 28일(월)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 한성백제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을 중심으로
김기섭 /경기도박물관장

첫 강의인 만큼 박물관의 어원과 유래를 살펴보고 한국 박물관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박물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쁜 박물관을 예시를 들어 지양해야 할 점을 시사했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의 건립과정과 경기도박물관의 운영 사례를 통해 평택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경기도박물관

11월 29일(화) 선사문화는 어떻게 박물관콘텐츠가 되는가 - 시흥오이도박물관으로 중심으로 김대홍 /시흥오이도박물관장(팀장)

지역박물관 대부분은 '선사문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선사문화'는 박물관의 첫 대면이기도 하다.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선사문화'가 주제인 전문박물관으로 박물관 건립과정에서의 유적 보존과 시민 활동을 살핀 뒤 박물관의 건축, 콘텐츠, 전시, 체험, 행사에서 어떻게 선사문화를 입혔는지에 대해 강의하였다.



시흥오이도박물관

12월 1일(목) 전문박물관은 어떻게 운영되나 -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



한국이민사박물관

하와이 이민의 과정, 이민지에서의 삶, 이민지에서 바라보는 모국에 대한 애정 등 한국이민의 역사를 살펴본 뒤 한국 이민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개관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특히 유물수집 방안으로 박물관 특성과 그에 따른 방안을 설립해야 하며, 기획 전시를 통한 유물확보의 사례를 강의하였다.

12월 2일(금) 좋은 평택박물관 만들기 - 전시사례를 중심으로 원영현 / (주)휴먼C 이사

박물관의 건립에 대하여 간략한 진행 과정과 다양한 전시사례를 설명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두바이 엑스포 개최국관 등 국내외의 다양한 전시 기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전시와 공간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하며 평택박물관을 함께 생각 그려 보았다. **소사별**



강의

소생蘇生 .. 다시 태어난 폐탄광

평택문화원 추계문화탐방

치목위원회 · 삼탄아트마인 제공



소련만행 규탄 결기대회(현 삼탄아트센터 본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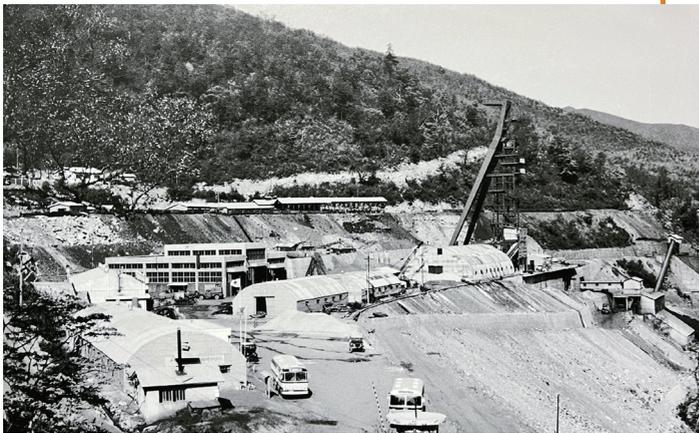
평택문화원 추계문화탐방이 2022년 11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진행했다. '평택의 유희시설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폐탄광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삼탄아트마인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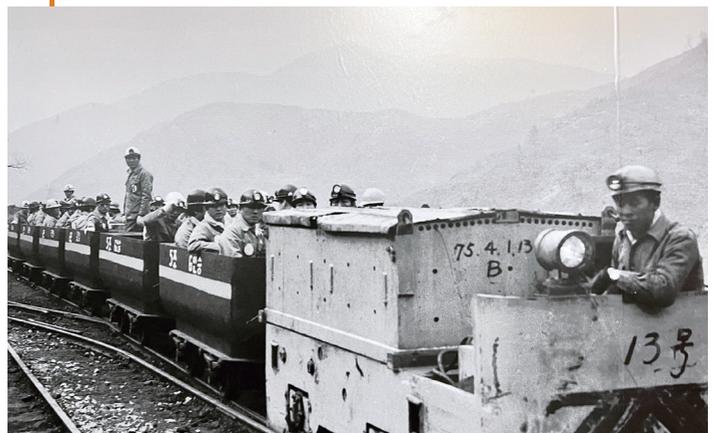
2022 평택문화원 추계문화탐방 단체사진(삼탄아트센터 본관 앞)

Chapter 01. 어둠 속에 빛나는

삼탄아트마인은 본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로 1964년부터 2001년 10월 폐광되기 전까지 3,000명의 광부가 석탄을 생산하던 국내 최대 탄광이었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전경(1970년대)



채굴현장으로 향하는 광부들(1970년대)

Chapter 02.
소생蘇生 : 다시 태어난 폐광

2011년부터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5월 24일에 개관했다. 미디어아트, 현대미술, 퍼포먼스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붉은벽돌극장은 목욕탕의 물을 데워주던 보일러실, 레스토랑321L은 탄광의 기계들을 제작, 수리하던 공장이었다.



마인갤러리 : 광부사위실



오리진아트뮤지엄(원시미술관) : '중앙압축기' 시설로 맑은 공기를 압축하여 지하 채굴현장 구석구석까지 공기를 공급해주던 시설



레일바이 뮤지엄(빛전시관) :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광부들을 갱으로 이동시키고, 채굴한 석탄을 캐울리던 조차장



레스토랑321L : 탄광의 기계들을 제작, 수리하던 공장



공간미학(米學) 조감도

Chapter 03. 지금, 평택

평택에도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간들이 있다. 폐교된 금각 국민학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웃다리문화촌, 철스크랩 제품을 생산하던 철강공장에서 평택시 제1호 사립미술관으로 등록한 mM Artcenter, 폐공장에서 다양한 공연, 전시 등이 운영 중인 고덕장이 있다. 최근 평택시는 2020년과 2021년 경기도에서 공모한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평택 오성면에 위치한 폐버섯재배사를 활용한 복합농업 문화 체험공간인 “공간미학(米學)”을 조성했다. “공간미학(米學)”은 3월 14일 개관하여 “쌀”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40%, 유소년은 9%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성과 영덕은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35%~39%로 학교는 폐교되고, 대형 병원은 수년간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농촌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유휴시설들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 저해 등 부수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지역 대체 산업 용자지원 사업’ 등 중앙정부 각 부처들이 유휴시설과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은 유휴시설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소사별**



2023 평택문화원 직원 워크숍 평택빵집로드

최희련 문화기획부 주임



케익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메뉴-딸기잼 롤케익



2023 평택문화원 직원 워크숍은 2023년 1월 11일에 평택의 오래된 빵집을 주제로 진행했다. 요즘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동네빵집이 사라져가고 있다.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케익나라(송북동)를 방문하여 빵집 이야기를 들었다.



김대식 케익나라 사장님과 함께



케익나라 빵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시식용 빵을 비치하여
단골손님을 만들었습니다."**

1997년 그는 송북시장에 케익나라를 열었다. 이미 주변에 빵집이 많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준 열쇠는 사람들의 구매패턴이었다. 손님들이 매번 사는 빵만 지속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후 시식용 빵 비치를 통해 다양한 빵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빵을 구우면 12줄이 만들어지는데 1줄은 시식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



케익나라 빵과 케이크

케익나라 빵



했다. 하지만 차츰 손님들이 시식용 빵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 추가 구매하기 시작했고, 덩달아 단골손님도 늘었다.

**"손님들에게
매일 신선한 빵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6년 동안 빵집을 운영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손님들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하는 것이다. 빵을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인 계란도 싱싱한 특란을 사용하며 매일 빵을 구워 손님들이 신선한 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케익나라의 빵을 자신있게 소개하고 추천해준다.

케익나라 빵



**"남들 잘 시간에도 노력한 결과
국제 빵·과자 박람회에서 수상했습니다!"**

김대식 사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기술을 익히고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다. 22살에 일반회사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던 중 빵집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던 친구에게 제빵사를 소개받아 제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한 곳에서 제과 기술을 2년 익히고, 이후 다양한 빵집에서 근무하며 더 나은 기술을 갈고 닦았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수면시간을 쪼개 빵과 케이크 기술을 연마한 결과 1987년도 국제 빵·과자 박람회에서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 외에도 1997년 전국 호두제품 경연대회에서 금상도 수상했다.

케익나라가 오랫동안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엿볼 수 있었다. 김대진 사장의 빵에 대한 자부심과 손님에 대한 진심이 지금의 케익나라를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시식회

평택에 오래된 빵집은 케익나라(송북동)뿐만 아니라 샤론베이커리(합정동), 신라제과(안중읍)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3곳의 빵집에서 단팥빵, 카스텔라, 소보루빵을 구입하여 블라인드 시식회를 열었다. 직원들은 취향에 따라 시식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3미(味) 3색(色)을 맛보다!’ / 김채민 문화사업부 주임

평택의 오래된 빵맛을 보려하니 나도 모르게 심장이 움찔했다. 처음 카르테라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풍미, 샤론 베이커리는 제품마다 향이 강하고 맛도 중독성이 있다. 케익나라는 반죽이 부드럽고 빵이 신선한 느낌이었다. 맛이 많이 달지 않고 입안에 넣으면 촉촉함이 감돈다. 신라제과는 빵에 깨도 듬뿍, 소보루도 듬뿍 얹어져 재료를 아끼지 않는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옛날에 먹었던 정감 있는 맛이였다. 어떤 게 더 맛있냐고요? 궁금하시다면 직접 맛보시는 게 어떨까요?

‘신라제과 빵맛에 대한 이야기’ / 강수진 옷다리문화촌 팀장

곰보빵 위에 두껍게 올려진 쿠키는 쿠키의 양에 비해 달지 않고 빵과 잘 어우러져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오래된 빵집의 명성답게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카스텔라는 적당히 달콤하고 부드러워 편안한 식감이였다. 개인적으로 팔소가 너무 많은 단팥빵을 선호하지 않아 적당한 양과 달지 않은 팔소와 담백한 빵이 어우러져 몇 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케익나라 빵맛에 대한 이야기’ / 박송이 옷다리문화촌 주임

1978년 시작된 케익나라는 44년 전통의 오랜 역사답게 빵 맛에서도 그 세월이 느껴진다. 빵이 전체적으로 많이 달지 않고,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자꾸만 입에서 구미를 당긴다. 프랜차이즈 빵집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재료를 아끼지 않은 두툼한 빵의 크기에서 사장님의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샤론베이커리 빵맛에 대한 이야기’ / 유언주 문화기획부 팀장

샤론베이커리는 평택 지역 내 몇 안남은 오래된 동네 빵집 중 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사장님께서 빵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오랜만에 샤론베이커리의 빵을 먹어보았는데 촉촉하고 부드럽고 달달한 그 맛은 변함없이 맛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오래된 빵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의 옛날 빵을 포함하여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빵들도 많이 있어서 세대를 아울러 지금까지도 이 빵집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사별**



시식회



노을의 고장 평택에서 펼쳐진 제9회 노을동요제

일시 : 2022년 10월 1일(토), 오후 3시

장소 :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구분	수상자	곡명
대상	해맑은아이들	돌려돌려 달려달려
최우수상	미라클중창단	오늘은 세배하는 날
	도란도란중창단	달항아리
우수상	설렘중창단	나에게
	아띠중창단	봄이 오는 소리
장려상	백지은	장난꾸러기 파도
	아름불휘중창단	여름이 궁금한 꼬마눈사람
	최민서	지구야 건강해져라
	꿈이크는아이들	동해바다 아리랑
고운소리상	귀요미중창단	맑음 맑음
	채윤희	엄마의 가장 좋은 친구
	이시안	봉숭아 사랑
맑은소리상	소리나래빛중창단	쉬는시간 진짜 짧아
	김이지	딸기야
노을 작사상	도란도란중창단	달항아리

제9회 노을동요제 대상 수상곡

돌려돌려 달려달려

작사 박소영
작곡 이상희
지도 명희정

전 사코 음양계 4 = 138





대상 아이그린동창단의 '우리가족 행복의 주문'



최우수상 도란도란동창단 '달항아리'



최우수상 미라클동창단 '오늘은 세배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부르는 동요세상 제3회 평택시민 동요부르기대회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후 3시
장소 :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구분	수상자	곡명	구분	수상자	곡명
대상	마지윤	봄	맑은소리상	유단비	달팽이의 하루
최우수상	김가현	어느 봄날		이예진	배고픈 호랑이
	펠리체중창단	행복밥상		이현아	내가 바라는 세상
우수상	전서연	풀잎세상		김자연	노래하는 바다
	은자매	꿈꾸지 않으면	김예린	별똥별	
	임세은	달팽이의 하루	김시연	노을	
	예쁜어린이셋	예쁜 아기 곰	임태은	네 잎 클로버	
인기상	임연경	바람의 향기	고운소리상	원평동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노을
	꿈의합창단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이서진	달팽이의 하루
	강하람	연어야 연어야		김동현	바람의 빛깔





대상 마지윤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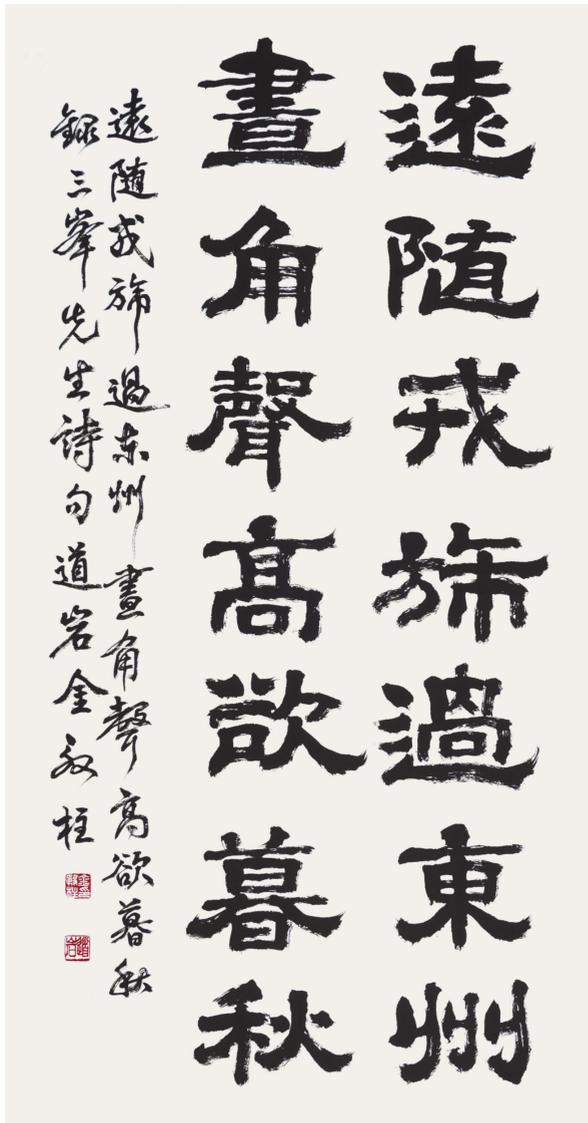
최우수상 김가현 '어느 봄날'



최우수상 펠리체 중창단 '행복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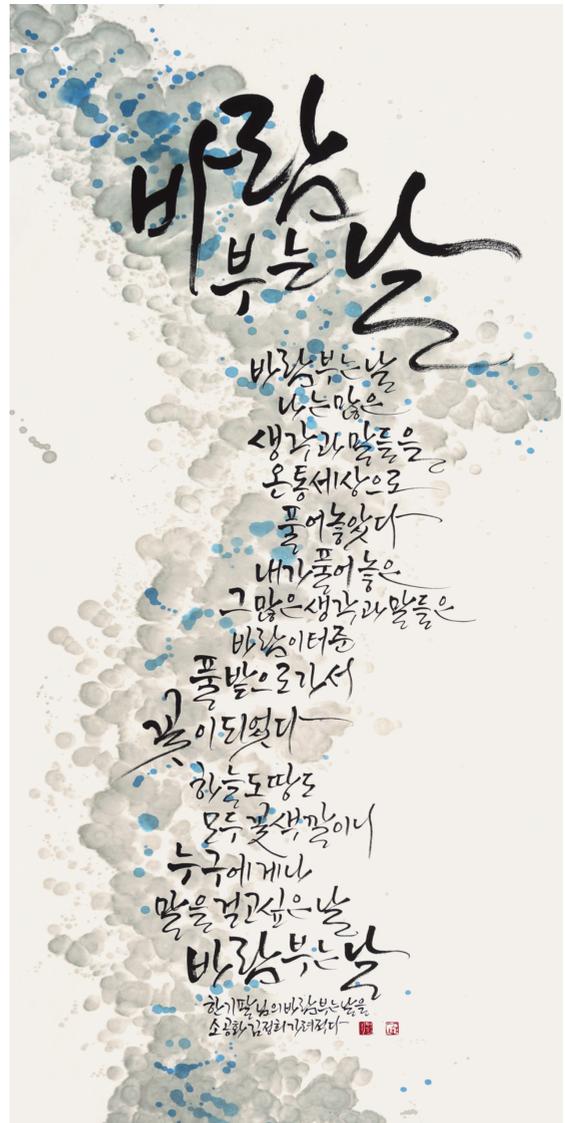
제 10 회 대한민국삼봉서화대전

종합대상



도암 김은주 / 과고동주

부문대상/캘리그래피



소공화 김정희 / 바람부는날

부문대상/한글

네나그를시어늘그기를돌려냈네상을
 사랑하여정각을지어늘있네금이찾아
 와글자름늘기회중일거로이야기를하
 였네상봉상회거학업은취하고능제마
 을에돌아왔네가난하여병에약드뜻먼
 지만항가항마이로시적은이르고있네

의한결이영재의삼봉선생시를화한다
 한결이영재

한결 이영재 / 산중

부문대상/문인화



소윤 전정란 / 소나무

소/사/별/화/보

- ① 2022 평택문화원 제52차 정기총회
- ② 2022 평택문화원 추계문화탐방(원주, 정선, 영월)
- ③ 2022 문화의 날 기념식





소/사/별/화/보

- ④ 2022 평택학연구소 자문연구위원 회의 및 평택학 학술포럼
- ⑤ 2022 평택학연구소 워크숍
- ⑥ 2022 평택학 학술대회



④



⑤



⑥

소/사/별/화/보

- ⑦ 2022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진위향교
- ⑧ 2022 평택시티투어
- ⑨ 2022 평택호문화예술제(풍어제)





8



9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길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개원하였으며,

여러 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평택의 고유문화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지역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문화 관련 자료수집·보존 및 보급
- ▶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

▶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 소사별단오제
- 평택시 정월대보름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 웃다리문화촌 운영

- 전시기획·운영
- 전시관, 운동장, 세미나실 등 시설대관
- 체험학습 프로그램
-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 지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 평택학연구소 운영
- 지역사 발간 및 연구사업
- 마을조사 사업
- 지역사 사료 수집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유산 활용사업
- 평택시티투어
- 평택학시민강좌

▶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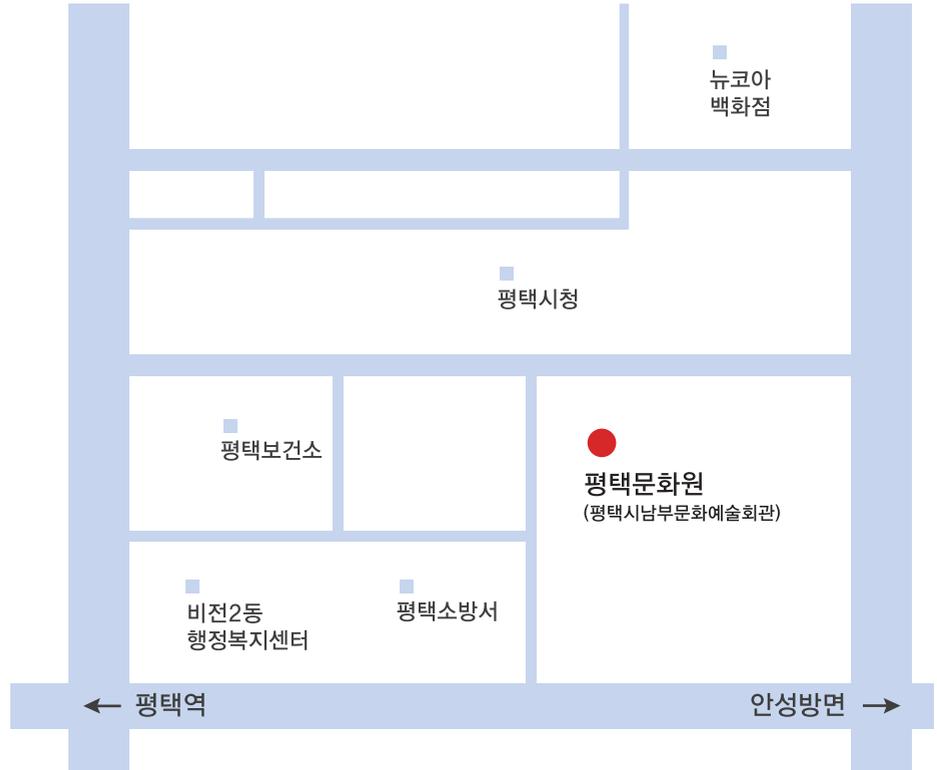
평택문화원의 연혁

2021년 12월 31일	평택문화원 68주년 《평택문화원사》 발간
2021년 12월 15일	평택문화원 창립 68주년 기념식(평택시청 대회의실)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3월 1일	제14대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취임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진흥표창(평택문화원장)
2014년 12월 19일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2년 3월 1일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취임(재임 2012. 3. 1~2020. 2. 29)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평택문화원장)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평가 표창 수상(문화부장관상)
2007년 10월 27일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 수상(문화부장관상)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을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3년 7월 28일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재임 2003. 7. 28~2012. 2. 29)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년 7월 27일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평택시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통합 초대원장,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유재호 취임(재임 1995. 7. 27~2003. 7. 27)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남부문화회관 내)
1993년 2월 26일	제7대 평택시문화원장 조중환 원장 취임(재임 1993. 2. 26~1995. 7. 26)
1989년 10월 11일	평택문화원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변경)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평택시종합운동장 내)
1982년 12월 15일	제4~6대 평택군문화원장 김창복 원장 취임(재임 1982. 12. 15~1993. 7. 26)
1978년 2월 25일	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주상 원장 취임(재임 1978. 2. 25~1982. 12. 14)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 인가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제1~2대 평택문화원장 민형식(재임 1971. 2. 2~1978. 2. 24)
1953년	평택문화원 개원(설립자 장순영, 사설문화원)

평택문화원 임직원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원 장	이보선	(주)주광에너지 대표이사	이 사	박용민	로알안경원 대표
부 원 장	최창목	(주)대한공업사 대표이사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황춘미	케이디할부사 평택법인대표
	신태식	(주)현대AVC사장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이재덕	(주)삼보텔레콤 대표이사		안광훈	하나농원&하나이벤트 대표
감 사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이충원	(주)씨앤아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배우학	베스트인슈&렌트카 대표		유범동	캠프햄프리스 수석 공보관
운 영 위 원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김복남	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장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김종구	평택가우디미술학원장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친 목 위 원 장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최승규	굿모닝병원 행정부원장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이형범	디자인창고 대표
이 사	김미영	前 국제로터리 3750 총재		견동훈	좋은축량 대표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원광혁	(주)YES네트웍스
	오중근	굿모닝병원 이사	원영준	도시디자인 대표	
	한상희	(주)동양틀테크 대표이사	윤기철	-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현주	라온누리통합교육연구소장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임영옥	서울서예협회	
	여운정	금호타이어 원곡대리점 대표	오민영	사무국장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유연주	문화기획부	
	최창환	목화회원 대표&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희련		
	김규동	(주)케이와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강수진		
	김성환	(주)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	박송이		
	공서구	알리앙스 대표	김한슬	문화사업부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최치선		
	안도향	前 보스턴어학원장	황수근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김채민			
			정소미		

평택문화원 오시는 길



대표전화 031.655.2002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제40호 소사별 원고 모집

평택의 종합문예지 《소사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글과 작품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작품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사별》에 실어 드립니다.

《소사별》에 작품과 글을 보내주실 분께

- 원고마감 : 2023년 8월 4일(금)
- 원고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 031.655.2002 전송 : 031.654.8807
이메일 : ptmhw@naver.com

- ※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
- ※ 원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